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194호 2010년 6월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제19차 평의원 회의 성황리 종료 사업 등 9개분야 보고및 6개분야 안건토의

미주 동창회 제19차 평의원 회의가 지난 11일 전야제로 개막돼 12일 본 회의를 거쳐 13일

환영 골프대회와 시상식을 끝으로 대성황리에 폐막됐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11개 지

부 회장및 평의원 외에도 서울 임광수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모교 동창회 인사(손일근 상임

부회장, 명태현 관악회 이사, 김남주 동창회보 기자)및 모교 김하석 특임부총장 일행(장재

성 학생처장, 남익현 발전기금 상임이사, 장정주 LA미주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미주 총동창회 김정주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중 전야제에서 임광수 총동창회장과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장의 축사 및 환영사에 이어 김하석 특임부총장의 축사 외에 이장무 총장을 대신한 축사가 있었다.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장은 서울 방문단 및 미주 각 지부 평의원을 소개한 뒤 ▶이운모(농대 57, 미주 동창회보 전 주필) ▶이희덕(농대 67, 델러스 지부 동창회장) ▶김용주(공대 73, 시카고 지부 전임 부회장) ▶이영진(공대 76, 조지아 지부 동창회장)등문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치하와 함께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전야제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됐던 동문 이케진 교수(Claremont McKenna College)의 '미국정책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학술강연이 이뤄졌다.

고병철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장의 사회로 오후 8시 시작된 학술 강연회 뒤 질의응답이 계속 이어져 밤 10시를 훨씬 넘기는 등 최근 고국 서해안에서의 불안한 폭침사건과 연계돼 이 강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대변해주었다.

12일은 송순영 미주 동창회장의 개최선언 뒤 김정주 사무총장의 성원보고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반까지 미주 동창회 여러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평의원 회의가 이뤄졌다.

< 3면에 계속, 관계기사 2-9면, 관련화보 15-17면>
<사진=노재욱 동문>



'Brain Network' 구성사업

11월경 첫 Workshop 개최 계획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장(사진)은 제10대 회장단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계획해서 추진 중인 'Brain Network' 구성사업에 대해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이 날 송 회장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미주 서울대 동문을 대상으로 한 'Brain Network' 구성사업은 미주 6천여 명 동문들의 두뇌자원을 분야별로 조직화해 모교를 세계 정상 대학으로 끌어올리는 과업과 모국의 선진화 과업에 기여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발단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실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 아직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장무 총장님의 조언대로 우선 모교의 Think Tank들과 연계가 수월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우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환경과 인간존속 여건, 모국의 금융과 경제 순발력 강화 등 3개 과제에 참여할 동문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다.

이 작업을 추진해오던 중 아직 이와 관련돼 있는 후보자들의 반응이 미온적이라 우선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시작해보려고 한다.

정치분야는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 명예교수인 고병철 박사께서 13명의 동료 정치학자들을 접촉한 결과 8명이 참가에 동의한 바 있다.

경제 분야는 Rochester 대학의 장용성 교수가 36명의 재미경제학자(실무자 포함)에게 초청장을 보낸 결과 현재까지 10명이 수락했다.

이렇게 구성된 'Brain Network'의 첫 사업으로 올 11월 첫 Workshop을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Workshop에서는 '한반도의 장래 : 정치적 경제적 측면'이라는 주제로 2개 부문의 Panel에서 학문적인 깊이가 있으면서도 현실 지향적인 토론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면'이라는 주제로 2개 부문의 Panel에서 학문적인 깊이가 있으면서도 현실 지향적인 토론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분야의 Panel에서는 남북한 정치현실의 문제점과 과제를 심도있게 진단하고 장래를 조망하면서 통일의 가능성과 전망도 생각해 볼 예정이다.

경제 분야의 패널에서도 같은 초점을 가지고 현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조망해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이같은 분야부터 시작해 점차 넓혀 갈 계획이다.

정치학과 · 외교학과 51년만에 통합

모교 정치학과와 외교학과가 지난 3일 오후 4시 서울 모교의 교수회관에서 통합 출범식을 열고 51년만에 '정치외교학부'로 통합했다.

출범식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 이들 학과 출신의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두 학과는 1959년 외교학과가 떨어져 나가면서 독자적인 학문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근세기에 들어오면서 국내와 국제 정치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학문간 융합을 지향하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합치게 됐다.

모교는 지난 5월 29일 열린 평의원회 본 회의에서 두 학과의 통합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학과는 2011학년도부터 정치·외교학부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원은 두 학과를 합친 것보다 늘어난 74명이 됐다.

PRSR STD
NON 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1 1068

특집 · 기획

<6.25 60주년> 6.25의 의미 / 법제 상대 동문과 6.25 / 포로강행담 10~11면

제19차 평의원의회의 총장·총동창회장 축사

이장무 총장 축사

2025년 까지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위해 계속 지원과 격려를

존경하는 서울대 미주동창회 송순영 회장님, 이영우 시카고 동창회장님, 그리고 평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전야제 이후 편하게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 19차 평의원 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각지에서 참석하신 동창회 대표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국을 떠나 계시면서 각 분야에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이처럼 봉사하고 계시는 평의원 여러분을 보면서 그간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신 노력과 열성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영광상·참여상·사회기여상을 수상하시는 이용락·윤상래·박중희 동문님께도 큰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귀중한 기회를 빌려 동문 여러분께 최근 모교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학교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이 되기 위해 확실히 전진해 왔습니다. 세계 유수 평가기관인 Times-QS의 대학 종합평가에서는 47위, 2008년 SCI논문 게재수에 있어서는 20위, 파리 에콜데민의 글로벌기업 CEO 배출 실적에서는 세계5위 등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 그리고 교수진과 학생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실적 지표들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그리고 세계인들의 인지도 면에서 명실상부한 세계의 대학이 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서울대가 말 그대로 '세계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지식을 생산하고 세계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물론, 세계 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학문간 통섭과 융합, 유연한 교육, 연구 및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유전공학부와 융합과학기술대학원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정부의 지원으로 World Class University Project를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해 미래지향적이고 융합적인 학과와 전공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융합학과에는 생물물리 및 화학생물학과, 뇌인지과학과, 분자의학 및 바이오 제약학과가 새로 생겨 대학원생을 뽑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여명의 외국인 저명학자와 석학들을 다양한 형태의 교수 신분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교는 법안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재정지원을 통한 책임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서울대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부터 모교는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을 돕는 동반자 사회(Social Companionship) 캠페인을 전개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소의계층을 배려하고 빈곤의 물림을 막기 위해 서울대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을 보살피는 SNU 멘토링, 새싹 멘토링, 미경력자 인턴십, 경력자 재교육, 경력자 활용사업 등을 시행했습니다. 교수와 교직원들은 자신들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할애해 기부하는 등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 나눔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사회봉사를 통해서도 우리 서울대인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가을에 Sustainable SNU를 선포해 에너지·환경등 지속발전 가능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O2 inventory를 조사하고 203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50%를 줄이는 여러 가지 plan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서울대의 거레에 대한 무한책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는 거기에 더해 세계 인류의 평화와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거레의 동양으로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실력과 덕성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의 대학으로 반드시 도약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한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그 잠재력 또한 충분합니다. 저는 미주 동문 여러분께서도 모교가 이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 데 기여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필코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이 돼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모교가 되겠습니다. 미주 동문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원해주시는 임광수 총동창회 회장님, 송순영 미주동창회 회장님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하석 특임부총장 대독>

임광수 총동창회장 축사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고 믿어

존경하는 송순영 회장님, 전임 회장님들, 그리고 김은중 차기 회장님과 평의원 동문 여러분!

변화를 선도하는 희망의 도시 이곳 시카고에서 제19대 평의원 회의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1년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엔 모교의 김하석 특임부총장님과 보지 교수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최근 모교가 영국 The Times지의 대학평가에서 47위, 1만여 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의 평가에서는 25위, CEO 배출 순위도 세계 5위에 랭크되고 2010년 조선일보와 QS(Quacquarelli Symonds)와의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는 동경대학 다음으로 6위에 오르고 발전기금도 3천억원 모금목표를 초과 달성한데 대하여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면서,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가능한 국립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법안이 현재 국회 심의의 결판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총장님과 교직원들이 함께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미주동창회도 송순영 회장님의 노력으로 제10대 집행부와 미주 23개, Canada 3개 지부가 더욱 단단히 뭉쳐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런 마음 가득합니다. 특히 지난 해 이진구 전 회장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12년만에 발간된 미주동문 인명록은 선후배 동문간 교류를 더욱 넓히는 동시에 현 집행부의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할 윤희유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송순영 회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Brain Network 구성작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모교의 세계 명문대학 진입에 커다란 역할이 되길 바라며, 미주 동문들의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될 지중해 Cruise 여행도 성황을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진구 전 회장님과 송순영 회장님, 그리고 제10대 집행부 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경애하는 평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각계 각종 동문들의 성원과 미주 동문님들의 후원에 힘입어 서울대 총동창회 제23대 회장에 연임되었습니다.

장학빌딩 건립 등 총동창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라는 동문들의 명령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해 모교와 동창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전 제 25대 모교 총장 선거운동을 무사히 잘 끝났으며 1위에 오연천 전 행정대학원 원장과 2위에 오세정 전 자연대 학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돼 곧 최종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총장께서 모교를 세계 명문대학으로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고 동창회는 신임 총장과 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의원 여러분! 서울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장학빌딩 건립은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문과 그 가족은 물론 후세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애용하는 만남과 대화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교가 깊은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년 전부터 여러 차례 각계 동문들과 동창회 모임을 거쳐 만든 모교 '개교 원년 재조정 축구 건의안'이 작년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교수협의회와 단과대학장회의,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 평의원회 의결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통과정제' 책자를 비치해 놓았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서울대 폐교론이 나왔을 때 '국가경쟁력과 교육의 수월성'이란 책을 시의적절하게 발간하고 동문들이 합심해서 모교를 도왔기 때문에 폐교론, 논술고사 시비와 국립대 공동학위제 등에 있어 모교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모교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세계 명문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이러한 논증자료가 필요하다면 동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내어 설득력 있고, 이해하기 쉬운 단행본을 발간하여 모교를 도울 것입니다.

선후배 동문 여러분! 국적은 바뀌어도 모교는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국과 민족 앞에 책임을 다하는 서울대인이 됩시다!

끝으로 이번 제19차 평의원회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미주동창회 임원 여러분과 시카고지부 동문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인사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본설위원:김일훈(CH) 김창수(NY)
김계환(WA) 남채홍(NY) 백순(DC)
오강남(BC) 오기창(CH)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택(SF) 장석정(CH) 정홍택(PA) 한창섭(NY)
편집위원:조민규(문) 조봉완(법)
조대현(공) 구정희(의) 이승자(사)
정호(공) 홍혜례(사)

이번 호의 차례
3. 송순영 미주총동창회장 환영사
4. <특별강연>미국정책과 남북관계
5. 제10대 회장단 사업보고, 지부 소개
6. 주요 안건토의
7~8. 영광의 수상자들
9. 행사장 낙수
10. 6.25한국전쟁 60주년
11. 6.25당시 포로검험담
12. You Are the Future of the World
13. 지구 온난화<하>
14. 아이티 의료선교<하>
15. 평의원 환영 골프대회
16~17. 평의원 회의 이모 저모
18. 명화 지상감상<미켈란젤로>
19. 지부 뉴스 & 동문동정
20~22. 동창회비·후원금 납부현황
23~29. 동문 업소록
30. 동창회 조직과 명단
31~32. 광고

제19차평의원의회의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장 · 이영우 시카고지부회장 환영사

좋은 동창회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중
제한된 시간 중요한 결정 순조로운 회의 기대



송순영(미주 총동창회장)

임광수 총동창회장님, 김하석 부총장님, 멀리 서울서 오신 선후배님, 그리고 미주 여러 지역에서 오신 평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Chicago에서 열리는 제19차 평의원 회의에 참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임광수 회장님께서 서울 총동창회 23대 회장으로 연임되신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백년대계의 일환중 하나인 장학재단 완공을 눈 앞에 두시고, 또 모교의 개교 원년 확립에도 착수하시어 관련 서적까지 출간하셨습니다.

항상 모교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며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시는 임광수 총동창회장님께 더욱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무 총장님께서도 모교 위상을 '세계의 대학'으로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많은 개혁을

단행하셨고 최근 '융합과학기술대학원'도 설립하셨습니다.

이처럼 모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고 머지않아 자리를 떠나시게 되는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단은 지난 1년 동안 동창회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는 앞으로 점차 가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미주 동창회는 우선 재정확보 문제에 염려했으나 많은 동문들의 협조로 지난 1년은 무사히 끝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동창회보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오고 있지만 항상 좋은 원고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지만 여러분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주 동문Brain Network을 구성하는 기초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작업은 미주 7천명 동문들의 두뇌 자원을 분야별로 조직화해 모교를 세계 정상의 대학으로 이끌어올리는 과업과 모국의 선진화 과업에 기여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발단한 것이었습니다.

모국의 선진화 과업에 기여한다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약간 너무 거창한 꿈인 것 같

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장무 총장님께서 지난 해 Brain Network의 구성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선 한국의 현실에 긴급히 필요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환경과 인간존속 여건, 모국의 금융과 경제력 강화 등 3개 과제에 참여할 동문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19차 평의원 회의에 이채진 교수를 모시고 학술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평의원 회의 중 특히 중요한 안건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해 평의원 회의에서 결정된 Nomination Committee위원 구성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대 미주 동창회 발전기금 위원회에 대해 새로 IRS인정을 받고 시작된 모교의 미주발전기금 제단과 병행해 운영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번 평의원 회의 중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서울대 미주 동창회 본부를 앞으로 한 곳에 두고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싶습니다.

평의원 회의의 좋은 분위기에서 의견교환도 많이 나누시고 제한된 시간이지만 중요한 결정을 순조롭게 내릴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궁한 모교발전, 총동창회와 두터운 유대관계를 기원



이영우 시카고지부 회장

임광수 총동창회장님, 김하석 부총장님, 그리고 수행하신 여러분과 미주 각 지역 평의원님들 먼 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평의원 회의를 시카고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시카고는 1871년 3월을 계속 불타는 미 역사상 가장 큰 화재로 33만여 명이 거주하던 시 전체가 전소된 바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Mrs.O' Leary의 송아지가 마굿간에서 랜턴을 뒷밭로 차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카고는 잿더미에서 불사조처럼 일어나 오늘 날 Metropolitan Area에 980만명이 살고 있는 Second City로 불리는 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바람이 많다고 해서 Wind City라고도 불리죠.

시카고는 미 중서부에서 가장 큰 대도시로 발전했으며 미시간 호를 끼고 건축 스카이라인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John Hancock Center와 Sears Tower를 디자인한 건축회사 SOM의 소재 도시로 오바마 대통령 Home Town이고 저명한 농구선수 Michael Jordan과 TV Entertainer Oprah Winfry를 배출한 한편 악명높은 Gangster Al Capone도 시카고 출신임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며칠 전에는 Hockey팀 Chicago Blackhawks가 49년만에 우승해 Chicagoan들이 한창 들떠 있습니다.

시카고를 떠나기 전 다운타운과 Millenium Park, Navy Pier의 아름다움과 Impressionist Painting을 Louvre박물관 다음으로 많이 소장한 유명한 Art Museum, Science Museum등을 관람하실 것을 권합니다.

꿈이 많았던 젊은 시절을 우리는 서울대에서 보냈고 그 시절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학창시절이 오늘 저희들을 만들었기에 우리 동문들은 모교 서울대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번 19차 평의원회에 미 지역 지부 동창회가 모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임광수 총동창회장님이 지난 해 인사말 중 선포하신 대로 '미래로 나아가는 동창회', '모교와 함께하는 동창회', '동문들에게 다가가는 동창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총동창회를 도와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계적 명문대로 나아가는 모교의 무궁한 발전과 총동창회의 더욱 두터운 친목과 유대관계 유지를 앙망하며 시카고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면에서 계속 >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 회장의 10대 회장단 인수인계, 이진구 전 총동창회장의 지난 9대 회 의록 낭독과 10대 회장단 사업 (이승자 총무국장), 동창회보 (고병철 편집위원장), 재무(박속 재무국장, 왼쪽 사진), 감사(박영규 감사, 가운데 사진) 보고와 오인석 모교 발전기금 위원장의 위원회 보고가 이어졌다.

또한 구경회 관악후원회 부위원장(오른 쪽 사진)의 관악후원회 보고와 동창회 지역 분담금 책정 및 납입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러 송 회장의 2011년 예산안심의 및 통과 절차와 토의 안건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토의안건은 동창회장 Nomination Committee(오인환 세척위원장)와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미주 동창회 Website, Brain Network구성, 종신이사회비 용도, 평의원 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Nomination Committee문제는 최대한 한 중 하나로 격렬한 의견이 교환됐다.

<관계기사 6면>

기타 안건으로 송순영 회장은 10대 회장단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10월 '지중해 Cruise'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지중해 Cruise'는 동문이



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행계획이다. 오는 10월8일 출발해서 9박10일 동안 지중해를 Cruise하는 여행으로 여행 경비는 1천730달러에 항공료는 별도다.

오후 6시반부터는 Reception에 곁들여 피아노 이소정(음대 84)동문을 비롯, 바리톤 김기봉(음대 87), 소프라노 라온실(음대 87) 동문에 의한 환영 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가 끝난 뒤 임광수 총동창회장, 이장무 총장이 수여하는 공로패 증정이 이어졌다. 임광수 총동창회장 공로패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윤제중(농대 55, 엘라스카 지부회장) ▶이승찬(농대 55,

캐나다 온타리오 지부 전 회장) ▶최인갑(공대 57, 오하이오 지부 전 회장) ▶조시호(문리대 59, 휴스턴 지부 전 회장) ▶이진구(농대 60, 제9대 미주 총동창회장) ▶노영일(의대 62, 시카고 지부 전 회장) ▶윤상래(수의대 62, 뉴잉글랜드 지부 전 회장) ▶김창수(약대 64, 제9대 미주동창회 감사) ▶제영혜(가정대 71, LA지부 전 회장)동문 등이다.

김하석 특임 부총장은 이장무 총장을 대신해 축사와 함께 '재미 자랑스런 동문 총장패'와 '발전기금 공로 총장

패' 증정식을 가졌다.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는 3개 부문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시상됐다.

▶영광상(이용락, 공대 48, 제6대 미주총동창회장) ▶참여상(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지부 전 회장) ▶사회기여상(박종희, 의대 69, 세종문화회 사무총장) 등이다.

발전기금 공로패는 ▶오인석(법대 58) ▶이진구(농대 60) ▶이경림(상대 64,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재정담당) 동문이 받았다. <관계기사 7-8면>

사진 왼쪽부터 고병철 편집위원장,김정주 사무총장, 장정주 LA 미주센터 소장이 함께 각테일을 즐기며 환담 중이다.



제19차평의원의회의

이채진 교수 학술강연 · 김하석 부총장 인터뷰



이채진(문리 59)

이날 이채진 교수는 특히 최근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이에 따른 미국의 대동정책에 대해 철저한 준비로 역사적인 예를 곁들여가며 자세하게 분석해 미주 동문들의 이해심을 크게 고취시켰다. 다음은 이 교수의 강연내용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 주>

이 교수는 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의 동향을 제시하고 이론적 시각, 미국 정책의 성격, 상호관계의 유형, 미북관계 회고와 전개(2009-2010), 남북관계 회고와 전개(2009-2010), 천안함 사건, 북핵문제 처리 방향, 미북관계 전망, 남북관계 전망 등의 분야로 나누어 강연했다.

▶이른적 시각=현실주의적 경향·이상주의적 경향·실용주의적 경향으로 나누어본다.

현실주의(Realism)적 경향은 '실용성'로 대면할 수 있다. 미 전 대통령 Bush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한국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노선이다.

이상주의(Idealism or Liberalism)라면 성선설로 대면할 수 있다. 과거 Clinton 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의 Obama나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 즉 Pragmatism으로 볼 수 있다.

▶미국정책=그동안 연속과 변화의 복합성을 유지해왔으나 점차 초강대국 지위의 상대적 저하에 대한 정책으로 군사적 봉쇄와 외교적 고립정책, 한·미·일 공조강화에 '핵우산 제공'을 확약한 바 있다.

오바마는 최근 백악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천명한 바 있는 데 이는 지난 2009년 김대중 정부때 '6.15 공동성명'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는 늘 변화해 현재 아프간과 중동 다음에 한반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상호관계=한미관계는 Clinton대 김영삼, Bush대 김대중, Bush대 노무현은 서로 불신관계에 있었다. 반면 Clinton대 김대중, Obama대 이명박은 서로 공조관계에 있다.

미북관계는 Clinton정부에서 무난했으나 Bush정부는 북한에 대해 '악의 축'으로 지칭할만큼 최악으로 치달았다. Obama 정부에서는 중도실용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김영삼 정부 시절 서로 불신관계였으나 김대중·

“미국 정책과 남북관계”

노무현 정부시절 각각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으로 최상이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실용주의에서 천안함 사건으로 예측불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북관계=지난 2009년 6자회담 교착, 9.19합의 불이행, 2차례 핵실험, 대국의 북한 무기수출 수송기 압류 등으로 부정적 상황이 계속됐다.

반면 Obama의 화해실용정책으로 Bosworth특사가 방북해 Obama친서를 전달하고 감석주 및 김계관과 회담한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0년 들어 핵태세 검토보고서와 핵안전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이란을 제외하는 등 부정적 상황이 지속돼 왔다. 게다가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과 5월 북한의 핵융합 성공 발표는 테러지원국 제지정 과 경제제재 요구가 강화될만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남북관계=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상호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남측의 '비핵개방 3000' 정책으로 '선 비핵후 경제개방'에 대해 북은 '이명박 역도'로 비난하며 제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응수했다. 게다가 북은 '우라늄 농축성공'을 발표하고 서해 대청도 교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분쟁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반면 김정일이 현정은 현대 회장과 면담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5개항을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실세로 알려진 김기남과 면담해 정상회담 가능성으로 비약하기도 했다. 또한 신종 플루 치료제 50만명분을 지원하는 등 관계가 부드러워진 바도 있다.

그러나 올들어 1월 서해 해군 교전과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은 남북 최고의 긴장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사이에 도북은 황장엽 전 비서에 대한 암살간첩을 남파했다.

▶천안함 사건=천안함 폭침사건은 남측 조사결과 북측의 어뢰에 의한 것으로 지난 5월20일 발표됐다. 미국도 남측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 지지해 북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제재에 대한 국제적은 공조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의 자작극' 등으로 부인해오고 있으며 '전쟁불사' 등으로 협박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남측의 발표에 대해 인정하기를 주저하며 북한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5월28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결정하고 누구도 비호않겠다'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을 뿐이다. 이 가운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가 천안함 폭침 46명의 진몰장병에 대

한 애도복념을 제의해 실시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국민중 72%가 '북한 소행이 분명하다'고 답했지만 21.3%가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모르거나 무응답'도 6.7%로 부정적 시각을 가진 국민이 거의 30%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국론분열적 요소로도 볼 수 있다.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유엔 안보리에 회부가 예정돼 있으며 테러지원국 제지정 여부가 관심사다. 북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며 전작권 반환 연기 등 한미 군사적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북측은 4만3천여 명의 북측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 철폐 등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실시할 것인지 관심사다. 그러나 서해와 동해 또는 DMZ지역의 소규모 군사도발과 대남 교란전술을 강화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여론조사=북한의 공격 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여부를 묻는 질문에 47%가 찬성, 25%가 반대하는 걸로 조사됐다. '남북 중 어느 쪽이 미국의 동맹국인가' 하는 질문에도 64%가 '한국'이라고 답한 것은



우리 교국에 고무적인 일이다.

▶북핵문제=북한 핵에 대한 처리 방향은 6자회담, 양자회담, 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의한 Grand Bargain' 등의 외교적 접근과 경제 제재를 통한 포괄적 타결 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가지는 과거 Bush처럼 군사적 압박과 전쟁상황 전개를 예상할 수 있다. 이외에 북핵을 묵인하고 더 이상의 핵확산을 방지하자는 대책의 3가지 방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3가지 방향에서 어느 길을 택할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미국관계전망=향후 2012년까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평화협정이나 정상회담, 국교수립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직접 무력 충돌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경제 제재와 핵확산 금지 강화가 계속될만큼 6자 회담이나 양자회담 가능성은 높을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관계 전망=평화공존을 지향하나 소규모 무력 충돌 가능성은 높다. 그런 가운데서도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될 것이며 고위급 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측에 의한 인도적 경제지원과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보이며 Grand Bargain이나 양자 합의의 충실한 이행 등은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통일 전망=통일은 매우 어려우며 지금과 같은 분단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 6.25와 같은 전면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통일은 연방·연합·공동체 통일과 흡수·편입통일, 무력을 사용한 통일 방식이 있는 데 어느 것이나 가능성을 낮게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능적 통합은 과정에 따라 어느 정도 점칠 수는 있을 것이다.

김하석 특임부총장 인터뷰

모교와 유대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



-이번 19차 평의원의 회의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이처럼 머나먼 타국에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동창회에 일일이 참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미 전역에서 이처럼 달려와 성원해준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교의 미주진출 일환인 LA분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분교 기능을 갖추지는 않은 상태라 정확한 명칭은 '서울대 미주센터'입니다. 영어로는 'Snu America Cent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교가 되려면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소 기능보다는 교육 기능을 지향하고 있지요.
-미주센터의 성격과 기능을 말씀해주신다면

우선 학생 인턴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의 모교출신 학생을 미국지역으로, 미주 학생을 국내 각 분야로 연계시키는 커넥션 로컬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지요. 한편으로는 모교출신은 물론 미주 동포들을 위한 교양 공개강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교를 위한 미주 지역 관련 정보 수집은 물론입니다.

-서울대 병원 LA사무소가 커다란 관심거리인데요

LA는 물론 미주지역 동문들과 동포들의 건강을 위해 설립한 서울대 병원 LA사무소는 지난 1년 반 동안 1천여 명을 유치하는 등 괄목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건강검진은 물론 각종 암을 비롯한 중증의 질병환자들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특히 한국의 위암 완치 성공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미국 의료계에서 인정했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내과외과가 위암 초기 진단을 받고는 서울에서 수술받은 사실이 이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교 교수님과 학생 중 일부가 아직도 법인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모교 법인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입장에서는 법인화가 이뤄지면 정부 지원이 줄어 여러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따라 등록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일본의 국립대학들이 법인화한 지 이미 6년 전인데 경쟁력이 있는 대학일수록 오히려 정부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교직원 입장에서는 법인화에 따라 현재의 공무원 신분은 바뀌는 것과 인사권을 이사장이 가진다는 데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요. 게다가 퇴직후 연금문제 등을 들고 있습니다. 신분문제는 계속 공무원을 원할 경우 원하는 정부 부서로 옮기는 것을 허가해주기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연금문제도 향후 20년간은 정부가 보장해주기로 합의했지요.

-미주 동창회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모교와 미주 동창회는 계속해서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는 등 유대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동창회가 모교를 위해, 모교가 동창회를 위한 정보와 지원 사업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 정보소통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주 동창회에서 추진 중인 'Brain Network' 사업 역시 모교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으로는 동창회에 젊은 층의 참여도가 극히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느낌입니다. 비록 젊은 층에서는 생활경제 문제가 우선이겠지만 원로 선배들일수록 이들에 대한 Activity Program의 개발에 따라 참여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19차 평의원의회의 회장단 사업보고·인터뷰·지역 동창회 소개

제10대 회장단 사업보고 요약

동창회보 시카고대 도서관서 영구보존

이승자 총무국장(사진)은 “제10대 회장단이 지난 해인 2009년 7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해 미주 동창회보 7월호를 차질없이 발행한 데 대해 송순영 회장을 비롯해 관계 임원들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날의 사업보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제9대 회장단에서 인계받은 동창회보 구독 동문이 총 6천 500여 명이었으나 동문 한 분 한 분마다 실제의 부실을 정리한 결과 현재 5천 950여 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10대 회장단 출범 인사경

동문들 관심과 지원 제고를 위한 서한을 동문들께 발송, 200여 명의 동문들로부터 미납 동창회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동창회 운영을 보다 경제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US Postal Service에 Mail at Non-profit Standard Mail Rates를 신청해 Permit를 받음으로써 Regular Mail Rate에 비해 30% 이상, 즉 매월 1천 달러 이상의 경비를 절약하고 있다.

▶10대 회장단 임원들의 노력으로 현재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가 본 동창회보를 영구보존토록 하고 있다.

▶송순영 회장은 미주 총동창



회에 대한 각 지부의 관심과 지원 제고를 위해 지난 연말 캐나다 토론토 지부 총회겸 연말 파티에도 참석한 바 있다.

▶북가주 지부가 IRS로부터 Tax ID / Ein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협력을 했다.

‘모교 발전기금’ ‘모교 발전기금 미주재단’

두 기금 당분간은 통합 않고 양립키로

‘모교 발전기금’과 ‘모교 발전기금 미주재단’ 양립키로 이 날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오인석 위원장(사진)은 “지난



4월 30일 현재 Total Liabilities and Fund Balance로 총 16만 달러가 남아 있다”고 회계 보고했다.

특히 이번 평의원의회의 안건 중 큰 관심사로 부각됐던 ‘모교 발전기금’과 ‘모교 발전기금 미주 재단’의 통합 문제가 거론됐다.

이에 일부에서는 모교 발전기금이 한국으로 가지 않고 미주 지역에 남아 있는 기금이니만큼 통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아직은 서로 통합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와 당분간은 양립해서 각각 별도로 운영을 해나가기로 결정됐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임원들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오인석 위원장 인터뷰

Yale대 서머프로그램 인기리에 진행중

‘모교 발전기금’과 ‘모교 발전기금 미주재단’의 관리와 현재 서울 모교 후예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Yale대 서머 프로그램’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 위원장으로부터 올해의 이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왔다.

-언제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됐나요

지난 2003년 전용찬 총장 때 LA평의원 회의시 후진들에 대한 Global교육 일환으로 미 명문대 교육 기금을 마련, 처음 시작됐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서울의 모교생 중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후배들 중 엄정 선발해서 Yale대에서 여름학기 수업과 학점 이수하는 물론 미국 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략 6주 기간으로 전공 한 과목과 선택 한 과목 등 2개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이 학점은 서울 모교에서도 인정해주도록 협의돼 있지요. 또한 별도의 학의 활동도 포함돼 있습니다.

-선발 인원과 경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처음 10명 정도를 선발해 경비 일부를 지원했지만 지난 해부터는 4명으로 줄여 전액 지

원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항공료부터 Yale대 여름학기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8년째 지속해오고 있지요. 올해도 모교에서 4명이 선발돼 이달 말 미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Yale대에서의 반응과 모교에서의 선발경쟁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모교생들이 모두가 뛰어난 것으로 Yale대에서 평가돼 등록금까지 상당량 Discount해 주고 있어요. 모교에서는 때마다 인기가 높아져 경쟁률이 수십대 1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미주 동문들의 협조는 어떻습니까

뉴욕지부 동양재단(교광림 동문)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유 시간에 인턴으로 일자리를 주거나 피크닉과 견학 등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 이들이 서울로 돌아간 뒤 감사의 뜻을 많이 전해옵니다.

-동문들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현재 서울 모교에는 Global교육에 필요한 우수한 우리의 후예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 한 명이라도 더 이같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동문 여러 분들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각 지역 동창회 자기소개

전야제가 열린 11일 각 지부 소개 시간에는 각 대표들이 나와 자신의 지역 동창회 특성과 자람에 밝혔다.

다음은 이 날 각 지역 동창회 이야기들 중 몇가지들을 요약한 것이다.

▶뉴욕지부 = 현재 뉴욕에서는 60세 이상의 동문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골든 클럽’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

이준행 현 회장 외에 정택수 전 회장께서 현재 85세로 지금도 건강하시고 동창회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동문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이준행 회장께서는 ‘News Letter’를 처음부터 자신의 경비로 발행해오고 계시다.

이 분들을 선배로 모신 것부터가 크나 큰 행운이다.

▶하틀랜드 지부 = 미국 지도에서 가운데에 점을 찍으면 바로 하틀랜드다.

하틀랜드는 미주리, 캔사스, 알칸사스를 비롯해 6개의 이름난 대학들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동문 선후배들이 특히

많이 모이는 곳중 한 곳이다. 현재 3개월에 한 번씩 ‘News Letter’를 만들어 동문들 근황을 게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문 자녀 3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뉴잉글랜드 지부 = 현재 모교가 추진 중인 ‘세계 대학 Top 10’에 들기 위해서는 뉴잉글랜드 지부가 가장 앞장울 서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뉴잉글랜드가 모교 출신 젊은 영재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한 곳이기 때문이다. 뉴잉글랜드에는 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300여 명이 관여하고 있다.

박병일 동문이 특유의 굵고 커다란 목소리로 워싱턴 지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오하이오 지부 = 오하이오 주가 역대 미국 대통령을 8명이나 배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이 밖에 미 대통령이 8명이나 나온 곳은 버지니아 뿐이다. 그러나 오하이오는 토마스 에디슨과 라이트 형제도 배출한 바다. 오하이오는 그만큼 유서 깊은 곳이다.

▶워싱턴 지부 = 워싱턴 지역 동문들의 수는 1천여 명이나 현재 등록돼 있는 동문들은 600여 명이다.

그런데 동문들이 동창회장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수입해와야 할 지경이다.

골프회 회장도 마찬가지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비책이라도 가르쳐주면 고맙겠다.

▶휴스턴 지부 = 지난 1984년 동창회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27년 동안 전 미주 동창회 중 장학금을 가장 많이 모아서 지급했을 것이다.

음악회, 골프대회를 비롯한 기타 모임들은 거의가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열고 있기 때문이다.

휴스턴은 약간 더운 지역이긴 하나 연세 드신 동문들에게는 아주 좋은 곳이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미주 동창회보 고병철 편집위원장 대신 동창회보 보고에 나선 김경주 사무총장은 “서한 발송 등 노력으로 7월경 회비 납부자가 1천 2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2천 500명이 회비 납부시 회보 발간은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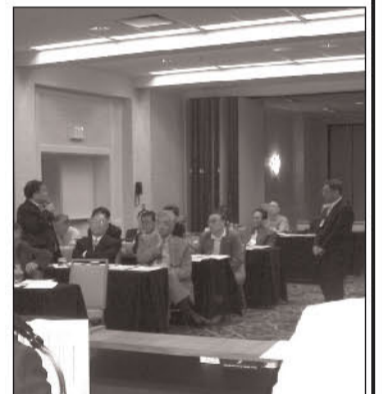
이날 현재의 동창회보 편집에 대해 동문 두 분의 불만과 이의제기, 또는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제기가 있었다.

한 분은 “본 회보가 미국에서 발간되는 만큼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제호를 영문으로 바꿔달고 한글 제호는 아주 작게 붙이자. 한국의 모교보다는 미국 현지 동문들에 대한 기사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토의결과 ‘아무리 미국이라도 제호는 우리 한글로 달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부결됐다.

다만 미국 현지 동문들에 대한 기사가 많아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할 뿐더러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미 거주 동문들에 관한 뉴스중 기사 가치가 큰 뉴스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또다른 한 동문은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제호 글자를 띄어 놓은 것은 틀린 것이다. 전 평의원의회에서 붙여쓰기로 결정한 것을 왜 띄어 놓았느냐. 다시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안전에 대한 토의 결과 결국 제호는 띄어 쓰기 쪽으로 결정됐다.

초등학교 국어시간에 ‘띄어 쓰기’ 중요성의 예로 선생님께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문구를 예로 들던 일을 기억하는 동문들도 많을 것이다.

‘New York Times’나 ‘Washington Post’ 등 미국 유수의 각 신문들이 그들의 제호를 붙여 쓰는 신문을 본 적이 있는가.

제19차 평의원의회의 주요 안건토의



오인환 세척위원장(마이크 든 이)이 세척 조목조목을 설명하고 있다.

Nomination Committee의 세척 규정

이 날 최대 현안 중 하나는 미주 총동창회장 선출을 위한 '인선위원회 세척(Nomination Committee(Standing) Rules and Regulations)'에 대한 토의였다 고 할 수 있다.

오인환 세척위원장에 의한 원안을 토대로 이날 토의 결과 다소 변경된 내용들, 그리고 토의된 기타 안건에 대해 알아본다.

Nomination Committee(Standing) Rules and Regulations

제1조 (목적)

본 회의의 차차기 총회장 후보의 효과적인 추천제도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본 위원회를 두며 총회장의 필요와 의회에 부응하도록 한다.

제2조 (위원의 구성과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은 현 총회장, 전임 총회장, 각 지역 동창회장, 평의원 2명 이상이 추천하여 평의원 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 위원 수와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위원회는 6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나)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이 한다(단 직전 총회장이 유고시는 현 총회장이 대행한다).

(다)현 총회장은 당연직 위원

이 된다.

(라)차기 총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마)지역 평의원들 가운데서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평의원 회의에서 4명의 위원을 뽑는다(단 평의원 가운데 전 총회장은 제외한다).

지역안배라 함은 특정지역에서 중복위원을 피하기 위함임을 뜻한다.

(바)위원의 임기는 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3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본 세척 1조에 기술한 목적에 수반되는 후보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해당 후보 추천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총회장에 보고하며 복수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총 회장은 추천에 따른 후보들을 회장단에서 검토한 후 평의원회의 투표에 붙인다.

평의원회에서 당일 별도 후보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 후보자들과 함께 투표에 붙인다.

(가)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위원장은 동수표를 결정(Tie Break)할 권한이 있다.

(나)위원들은 전임 총회장, 각지역 회장, 평의원들에게서 추천을 구하도록 한다.

(다)회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5명으로 한다.

제4조 (후보 대상 분야, 심사 기준 및 추천 절차)

후보 대상 분야 <차차기 총회장 후보>

▶심사 기준
차차기 회장 후보는 재미 서울대 지역 동창회 회장을 역임했거나 혹은 총동창회장단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준 동문, 혹은 일반 회원 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추천 절차
후보 추천위원회는 평의원회에서 차차기 회장 후보자 추천을 공고하고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본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회장단에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여 다음 평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차차기 총회장 선거가 있는

해의 평의원회 6개월 전에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여, 위의 심사 기준을 토대로 후보자들의 자격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사용한다.

추천위원회의 토론 내용은 감사의 필요 외에는 비밀로 한다.

▶후보자 출마 의견 발표
차차기 총회장 후보로 추천 받는 경우 평의원회 혹은 미주 동창회보등을 통하여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포부와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제6조 (감사)

본 위원회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제 4조와 제5조에 정한 장부, 서류 및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세척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세척위원회 위원(6월 현재)

제5조 (서류)

본 위원회는 제4조에서 언급한 서류 일체를 5년간 보관하여 총회장 후임자들과 본 위원회 후임자들을 위한 자료로 보관하고 감사에 대비한다.

이름	단과대	거주지	직책
서중민	공대64	PA	PA 전 회장
진금섭	약대57	VA	위원
오인환	문리63	MD	MD 전 회장
한재은	의대59	IL	이사
이용락	공대48	IL	6대 총회장
신용남	농대70	NY	NY농대회장
김지영	사대69	CA	CA차기회장

세척 안건토의 이모저모

세척 규정에 들어가 우선 총동창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명칭부터 규정짓기로 했다.

즉 '인선위원회'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천위원회' 또는 '추천위원회'로 할 것이냐를 두고 토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대한 표결결과 '추천위원회' 즉 'Nomination Committee'로 낙착됐다.

제2조에서 Nominating Committee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위원회는 6명의 위원과 1명의 위원장 등 총 7명으로 한다'고 결정됐다.

평의원 중에는 23개 지부에서 각 지부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 심사대상으로 인선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인환 위원장은 23개 지부회장이 모두 인선되는 것도 좋으나 이분들이 추천한 분들까지 모두 되면 너무 많아진다고 해서 부결됐다.

이와 함께 Committee가 개최할 수 있는 Quorum 즉 '정족수'가 포기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다수결로 할 것이냐', '3분의 2로 할 것이냐'로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나 표결 결과 'Committee 구성 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한다'로 귀결됐다.

(나)항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이 한다'에 대해 모 평의원이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 회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수정안'이 제기됐으나 표결 결과 원안이 좋다고 결의됐다.

(라)항 '당연직 위원'에서는 '직전회장, 현회장, 차기 회장' 등 3인으로 하자는 개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토의한 뒤 표결에 붙인 결과 결국은 개회안 대로 할 것으로 표결됐다.

제3조 (나)항중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는 '추천을 받

는다'로 수정됐다.

제4조 후보대상에서는 기존의 대상 인사 외에도 Floor Nomination을 받아 임해보할 수도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또 한편에서는 '아직 Floor Nomination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라 받아들이 수는 없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제정이 있었다. 미주 총동창회에서는 아무나 총동창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여기에서 열렬한 토의 끝에 결국 표결에 붙여졌다. 그 결과 Floor Nomination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Nomination Committee 구성에 있어서 나머지 4지역에 대한 추천 과정이 있었다.

이에 대해 먼저 휴스턴·필라델피아·뉴잉글랜드 등 3곳이 결정됐다.

이 밖에 1개 지역을 두고 워싱턴 스테이트·미네소타·하틀랜드가 경합을 벌여 하틀랜드로 결정됐다.

미주총동창회 웹사이트 'www.snuaa.org'로 통일

회장단 바뀌어도 기존 이름 유지키로

미주 총동창회의 웹사이트는 그동안 'www.snua.net', 그리고 일부에서 동문카페 'cafe.daum.net/snua10'으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동창회 이름을 대표할 'www.snua.net'는 처음부터

제대로 확보 운영되지 못해 이미 제17차 평의원 회의 때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다.

이 웹사이트는 애초에 미주 총동창회를 대표할 웹사이트로

은 개최 초기 사업보고 부분 중 "제10대 회장단은 이미 지난 해부터 'www.snuaa.org'라는 Domain Name의 새로운 웹사이트를 신설해 운영 중"임을 밝힌 바 있다. 이 내용은 현 동창회보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계속해서 게재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제11대 회장단에서 이 웹사이트를 인계받아 지속적으로 이용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 날 평의원 안건에서는 이 문제가 부각돼 차기 회장단에서는 'www.snua.net'에 대한 이용 방안도 열렬히 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중 토의 결과 종래는 표결에 붙여졌다. 표결은 'www.snua.org'라는



이름의 웹사이트가 앞으로는 미주 총동창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표결됐다.

만약 이 웹사이트를 차기 회장단에서 다시 바꾼다면 모쳐

럼 10대 회장단에서 제작에 들인 경비는 물론 시간과 공을 들여 만들어 온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돼 여러 가지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정주 사무총장

제19차평의원회의

영광의 수상자들과 소감문

<사진 오른 쪽이 수상자>

총정수여 '자랑스런 동문상'

영광상

이용락(공대 48)

대한민국이 건국하던 1948년 당시 동송동 소재 국립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1년 후 마포구 신공덕리 옛 경성대 이공학부 자리로 학우들과 함께 각자의 의자를 들고 걸어서 이사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로 군복무를 마치고 부산 대신동의 비가 새던 가교사에 복학해 전쟁 중인 1953년 부산 영도구의 영선국민학교에서 졸업장을 받던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교 교육을 바탕으로, 지난 60여 년간, 열 전달, 열 동력과 열 교환에 관한 기초공학 이론 연구와 자동차 열교환기 개발에 관한 응용연구에 몰두해, 다수의 학술논문 발표와 개발특허를 받은 작은 성과를 냈습니다. 최근에는 인류문명의 에너지 사용증가에 따르는 화석연료가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가스 문



제의 대처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 한국과학기술자협회와 재미 서울대 동창회에 봉사하는 동안, 각 분야에서 묵묵히 선구적인 업적을 쌓고 있는 많은 동문 선후배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이 '영광상'을 받게 돼 겸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고등학술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교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계속할 것을 모든 동문 선후배와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참여상

윤상래(수의대 62)

윤상래 동문은 매마침 해외 출장 중이라 윤희경 동문(사진 오른 쪽)이 김하석 특임 부총장으로부터 대신 수상했다.

사회 기여상

박종희(의대 69)

이 상은 세종문화회 모든 임원 및 이사님들께서 함께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혼자 받으니 송구한 마음 가득합니다. 시카고 동창회도 함께 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이유를 말씀 드리지요.

세종문화회는 2004년 시카고에서 비영리단체로 시작됐습니다. 애초 취지가 한국의 문화적 유산을 우리 2세들과 미주류사회에 알리는 방편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음악 경연대회와 작문경연대회를 하되 한국적인 선율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고 한국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을 필수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시카고 동창회 사업으로 건의, 당시 회장 전현일·임이섭 선배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그때 역대 동창회 회장님들과시카고 총영사님께 자문을 구했고 이사회에서도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이런 사업은 서울대 동창회 사업보다는 독립 단체로 활동해야 범 한인사회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단체가 스스로 자립 능력을 가질 때까지 우리 동창회에서 Seed Grant를 주도해 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카고 동창회가 세종문화회의 산과 역할을 한 셈입니다. 저 더러는 세종문화회가 튼튼한 기반을 닦을 때까지 사무총장으로 실무를 맡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을 세종문화회 임원 및 이사님들, 또 보이게 안보이게 도와주시고 조언을주신 여러 동문님과 함께 받는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



라는 격려로 알겠습니다.

금년 5회째 맞는 세종 작문 대회에는 미국 37개 주에서 무려 700여 개의 시조와 460여 개의 수필이 들어왔습니다. 이 작품들을 보낸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영어시간에 처음으로 시조쓰는 것을 배우고 한국의 전래동화를 읽고 수필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중고교 교사들에게 한국의 시조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마련하고 또 시조를 가르칠 때 한국역사와 문화를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종음악 경연대회는 여섯번을 마쳤고 미중서부에서는 명실공히 권위있는 음악경연대회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국제작곡 경연대회를 통해 많은 외국 작곡가들이 한국의 전통음악 멜로디나 장단을 가지고 작곡하느라 한국의 음악을 배우고 이해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님들, 그동안의 격려와 성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세종문화회의 활동을 지켜보시고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공로 총장패

이경림(상대 64)

졸업생의 일원으로서 모교를 위해 봉사해야 함은 당연한 일인데 과분한 상을 주심에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교가 나날이 발전해 세계 우수한 대학으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동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 대학 서열을 보면서 일취월장하는 모교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4년동안 재미 총동창회 재무일을 보면서 모교발전 100만 달러 모금 운동을 당시 오인석 회장님과 벌였을 때 제임기간동안 100만 달러에 근접한 모금 실적을 올리고 대부분의 기금이 모교에 보내져 학교시설 확충, 장학기금, 재학생 언론 기자들의 미국 대학 탐방, 그리고 모교 재학생들의 예일대학 연수 지원 등으로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며 애교 정신을 보여준 모든 동문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교가 법인화돼 독립법인으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미래앞에 서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서울대 국제재단도 발족해 동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미 국제청으로부터 면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받기 전 미국 내 우수기업에 종사하는 동문들이 그들 기업으로부터 10만 달러의 기부를 받아 냈고 동창회보에 재단 설립기사가 나간 이후 많은 동문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많은 참여로 모교 발전 기금



이 날로 커져 모교의 눈부신 발전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총동창회장 공로패

제영혜(가정대 71)

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론 부족한 제가 이 상을 받는다는 게 저희 남가주 쟁쟁한 선배님들께 부끄럽고 송구한 감이 듭니다.

1993년 처음 동창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17년 간 안 해본 죄책없이 동창회 일에 관계하다, 드디어 작년에 회장을 하면서 마지막 힘까지 쏟아붓고 나니 이제 더 이상 동창회엔 쓸 기력이 남아 있지 않은 듯한 이 때 이런 상을 주시니 소원해지려는 절 다시 동창회에 묶어두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늘 그렇듯이 상은 체적인 것이지요. 한 서너달 동안 방편자로 먼 말치에서 동창회 일을 바라다보던 절 나무라시는 데 네요.

미주 동창회원 수의 약 30%가 남가주

총동창회장 공로패

최인갑(공대 57)

매년 서울대 총동창회 임광수 회장님 이하 임원들께서 미국까지 오셔서 미주 총 동창회에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미주 총동창회를 이끌어 오신 전 회장님들과 현 회장인 송순영 회장님과 임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이용락 선배님(제6대 미주 총 동창회장)의 권유로 지난 2003년 3월 1일 오하이오 주 여러 도시로부터 약 40여 동문들과 특히 그 날 Chicago에서 350여 마일의 눈 오는 길을 부인동반, 운전해오신 이용락 선배님을 모신 가운데

동참입니다. 이 남가주 동창회가 다른 지역동창회, 또 나아가서는 타대학 동창회의 모범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제게 이 상을 주신 손순영 미주총동창회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영광을 남가주 모든 동창회원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Columbus, Ohio 에서 오하이오 주 서울대 동문회 창립 모임을 가졌습니다.

현재 오하이오 주에는 약 120 동문들 주소가 파악돼 있습니다.

그 중 15% 정도는 회비(신문 구독료)와 모교의 장학/동창회관 건립기금 모금에도 참여 함으로써 모교를 아끼는 정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동문 주소록 준비를 도와 주신 이주영(의), 김승호(법), 이장섭(의), 정윤행(문), 최용완(공), 김동광(공), 이성우(상), 그리고 김재성(공) 동문들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하이오 주 동문회는 5월 1일 부로 송원길(의대 58입)회장, 홍성원(약대 87입) 총무와 김용현(경영 66 졸) 동문에 의해 훌륭하게 모든 계획이 활성화 되는 동문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곳의 모든 서울대 동문회가 불심 양면으로 모교를 도와 2025년에는 세계에서 Top 10 등급에 속하는 우리 모두의 자랑스런 서울대가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 합시다.

제19차평의원의회의 영광의 수상자들과 소감문 <사진 오른 쪽이 수상자>

총동창회장 공로패

조시호(문리대 59)

과연 내가 공로상을 받을 만큼 동창회를 위해 일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 좀 송구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동창회를 위해 일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68년 유학과 New York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Houston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984년 서울대 Texas 남서부 동창회 창설 Member로 봉사를 하였고 1990년과 2006년에는 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동창회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으나, 서울대 Texas 남서부 동창회는 28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000년부터 후원이사 및 서울대 미주 동창회 평의원 중신이사로 봉사해왔고 매년 평의원의회의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으며 매년 미주 동창회 후원회비 및 동창회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납부해왔습니다.

이 모든 나의 행동을 제가 우리 모교에서 받은 혜택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따름이며 부족한 저를 예쁘게 보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교가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것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따름이며 부족한 저를 예쁘게 보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교가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것을 보고 싶습니다.

총동창회장 공로패

노영일(의대 62)

동창회장직을 맡아 달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새삼스럽게 50년 전 모교에 입학했을 때의 감격과 프라이드를 되새기며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저는 남달리 무려 23년간을 오직 서울대 담장안에서 초등교육부터 최고학부 교육까지 수료 하였기에 진정 모교는 저의 것들이요, 고향입니다.

그래서 동창회장 임기 지난 1년간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힘껏 최선을 다하여 조금이라도 모교의 명예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선후배님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으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무사히 임기조차 마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하고, 손잡고 애써가며 어려운 행사들을 하나하나 치러가는 가운데 동창들간의 우의도 다져지고, 또 모교 동창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인간 관계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동창회에 얼마나 많은 인



재들이 있어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며 모교의 명예를 높여주고 있는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국적은 바뀌어도 모교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씁니다.



오인석 발전기금위원장 총장 공로패



이전구 미주동창회 전회장 총장 공로패

< 5페이지에서 계속 >

▶남가주 지부 =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른 어느 지역 동창회에서 볼 수 없는 젊은 동문들 조직인 '관악연대'의 활동일 것이다. 또 특이한 것은 매년 동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이 행사에서는 의

료, 범조, 회계를 비롯한 모든 전문직 전문가들이 우리 동포들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는 행사다. 7월9일은 교아원 모금 활동을 위한 '자선 음악회'가 준비돼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부 = 사랑거리가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활동, 두번째는 구성원을 들 수 있다. 활동은 음대 출신이 많아 음악회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올해 3회제인 음악회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신수정 동문을 초청한다. 구성원은 실리콘 벨리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많은 데 우리 공대 출신 동문들의 활동이 뛰어나다.

필라델피아 손재욱 회장이 지역 동창회 활동을 설명중이다

▶필라델피아 지부 = 청소년 장학재단을 통해 우리 한인 학생 뿐만이 아닌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동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민 가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고취 제고의 일환 중 하나로 총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문가 이내원 동문을 초청한 강연회도 열었다.

▶온타리오 지부 = 장학재단을 구성해 장학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회장단 덕분에 IRS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절차를 알게 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름을 '관악재단'으로 했는데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지 동문들 고견을 부탁하는 바다.



총동창회장 공로패

이윤모(농대 57)

미주 총동창회에서 나에게 '공로패'를 준다는 말을 듣고 이것을 받기가 주저했다.

미주 동창회보 편집과 제작 작업을 시카고에서 인수하면서 주필을 9개월 동안 맡았었다고 하나 임기 중에 도중 하차했으니 회장님을 비롯해 함께 동창회 일을 시작했던 분들께 송구스러운 생각 밖에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10대 회장단 인수를 앞두고 시카고에서 동창회보 발간을 맡을 동문을 찾던 중 오랜 언론 경력을 가졌다는 연유로 내가 맡게 됐다.

당초 기사 작성 외의 디자인 작업만은 아웃 소싱 용역으로 하려던 여건과 계획이 달라져 동창회 사무실에서 직접 컴퓨터로 디자인 작업까지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20년 전 언론사를 떠났고 이제는 공직에서조차 은퇴해 7순

을 넘은 사람이 컴퓨터로 디자인을 새로 배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뉴욕 동창회에서 동창회보 디자인 작업에 사용하다가 인계해 준 'Quark Express' 라

는 소프트웨어의 'Q자'도 몰랐던 작년 6월 초부터 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7월 안에 시카고 발행 첫 회보를 인쇄했을 때는 꽤나 감격스러웠다.

또한 언론계의 오랜 경력을 가진 이기준씨를 편집장(후에 편집주간)으로 맞았지만 그도 컴퓨터라면 전문기술이 별로였던 터라 함께 개발하고 훈련해서 그가 혼자 Quark를 다룰 수 있게 됐다. 이제 회보 발행이 케도에 올라 내가 없어도 작업은 잘 돌아갈 수 있으니 나는 회보 제작 직무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됐다.

'공로'라기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노년기에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나는 흥분하지만 동창회에 남아서 수고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기 그지 없다.

한편 이런 노력을 필요로 하는 동창회보 발행은 중소 지역에서 총동창회 회장단을 맡는 데는 핸디캡이 되므로 미주 동창회보 발행 업무를 개선할 창의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총동창회장 공로패

김창수(약대 68)

개업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을 통해 여러 고객을 만나고 각계 각층의 사람을 대하다 보니, 사람을 두가지 유형으로 평가하는 버릇이 생겼다. '성공하는 타입과 실패하는 타입'이다.

성공하는 타입의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적극적이다. 그리고 시간약속을 잘 지키고 금전 거래가 깨끗하다. 고객, 친지, 동창, 소속된 단체의 회원 등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단체모임에 열성을 보인다.

그 중에서 동창회 모임에 열심인 사람들은 우선 사고방식이 건전하고 신체가 건강하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성공적인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우리 동문들은 단합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들지만 동창회

모임에 열심히 참가하며 시간과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선후배님들이 있어 우리 동창회가 계속 발전해 오고 있으니 흐뭇한 생각이 든다.

우리가 동문 부부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와서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동창회 모임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온 것은 동창회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와 집안의 모든 스케줄을 짜기 때문이다.

뉴욕에서는 15년 넘게 감사적으론 맡아오고 있으나 '만년감사'의 별명이 붙었다.

이번에 세계에 흩어져 사는 동문들께 핏줄 같은 임팩수 총동창회장님께서 주시는 이 공로패는, 앞으로 동창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의 다독거림으로 알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사무실에 멋있게 디스플레이 하려다.



제19차평의원의회의 행사장 낙수(落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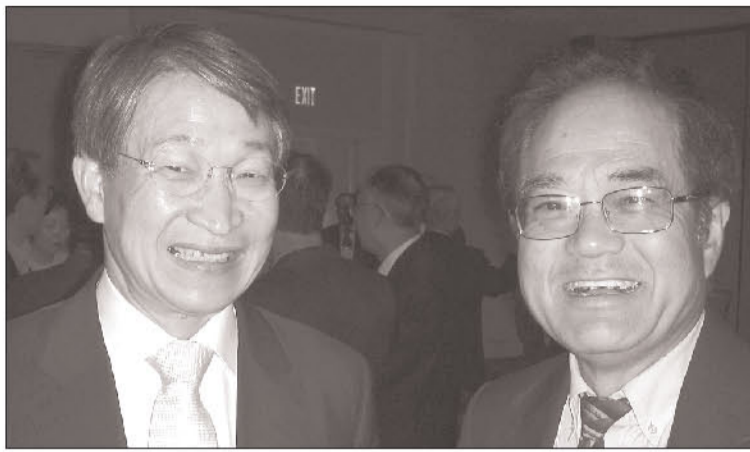
반세기만의 감격적 해후 김은중·김사직, 김하석·김동희 동문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는 참으로 이색적인, 그러나 감격적인 해후가 2건이나 있었다. 그것은 서로 가깝게 지내다가 헤어진 지 무려 거의 반세기만에 처음 만나는 동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남성 동문 커플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은중·김사직 동문

“나 알아보겠어요?” 메리어트 호텔 행사장에서 부인 김혜섭 여사(왼쪽 사진 왼



쪽)와 함께 세번째로 등록을 마친 차기 미주 총동창회장 LA의 김은중 동문(왼쪽 사진 중앙)에게 시카고의 차기 동창회장 김사직 동문이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 김은중 동문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이내 알아보고는 “김 동문 아니야, 이거 몇십년만이지? 여기서 만나다니...” 하면서 서로 어깨를 감싸안아 주위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했다. 두 동문은 상대 59학년

으로 모교 졸업 후 지난 1967년 경 고국에서 급성산업과 쌍용시멘트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것. 그러다가 각각 회사를 그만두고 따로 따로 미국에 와 이 날 헤어진 후 처음 만나 이처럼 회포(?)를 풀게 됐다.

김하석·김동희 동문

두 동문은 1970년 초 University of Illinois 어페너 샴페인에 유학을 와서 같이 공

부하던 사이였다는 것. 김 부총장(오른쪽 사진 왼쪽)은 63년 입학으로 화학 전공이고 김 동문은 66년 입학에 토목공학이 전공이다. 따라서 김 부총장이 3년 선배인 셈이다. 그러나 서로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유학 시절, 두 동문은 데니스 등 운동을 즐기며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등 동문의 우의를 다져왔다고 했다. 두 동문은 각각 해당 분야 학위를 받은 뒤 김 부총장은 모교로 돌아가고 김 동문은 시카고에 그대로 남았다가 이 날 이렇게 처음 만난 것이다. 김 부총장은 이 날 평의원 회의 축하 첫 머리에서 “이곳 일리노이에서 공부하던 감회가 새로운 데다가 절친하게 지내던 중 서로 헤어진 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동문을 이렇게 처음 만나고 보니 이곳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말해 동문들로부터 힘찬 박수를 받았다.

“크레디트 카드도 받겠지요?”

뉴잉글랜드 차기 회장 짓곳은 농담 하틀랜드 회장단 일착으로 등록

“크레디트 카드도 받겠지요?” 11일 금요일 오후 4시반경 평의원 회의를 위한 접수 등록대에 세번째로 도착한 뉴 잉글랜드의 차기 회장 윤희경 동문(문리대 62, 아래 사진 오른쪽)이 던진 농담이다. 이에 대해 접수를 맡았던 박숙 재무국장은 “안되겠는데요” 하고 정중히 거절. 윤 동문은 다시, “현재는 크레디트 사회인데 더구나 서울대 동창회가 카드 사용이 안된다는 것이 뭐니까” 하고

짓곳게 말을 받았다. 이에 박 숙 재무국장(윗사진 왼쪽)도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으나 “내년부터는 고려해보도록 하죠” 하고 넘겼다. 이날 평의원 회의를 위한 접수대에 가장 먼저 도착한 지부팀은 하틀랜드 회장단이었다. 오후 4시 반 경 오명순 동문을 비롯해 구명순 차기회장 등이 첫 접수를 마쳐 10대 회장단 임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손재욱 필라델피아 회장 일행이 두번째로 등록을 마쳤다.(윗 사진)



43년의 청·노 세대차

임광수 총동창회장 환영 만찬이 열렸던 12일 모 테이블에서는 너무나도 젊은 동문이 자리를 차지해 보기 드문 광경으로 주변의 시선을 모았다. 서울대 발전기금의 남상백(사진 왼쪽) 모금지원팀장이 자리했던 것이다. 남 동문은 이날 가장 젊은 인문대 96학번으로 아주 원철한

이른바 ‘꽃미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옆자리의 최의필 동문(의대 53)과는 무려 43년의 연배 차이인 셈. 최 동문은 다정하게 남 동문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등 따뜻한 테이블 분위기를 과시했다.



“Large Size라야 내게 맞지 않을까?” 손일근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이 11일 참가 등록을 마친 후 모교 로고가 적힌 T셔츠의 사이즈를 고르고 있다.

모교 로고 T셔츠 인기

제10대 회장단에서 준비한 모교 로고 T셔츠가 평의원 회의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다. 혼자 참석한 동문 대부분은 자신의 것 이외에 한 장씩을 더 요구하곤 했다. 이유인 즉 부부가 공식행사 때마다 이른바 ‘커플 룩’으로 착용하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 다른 동문은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분도 있었다.

흡족한 회의장소

이번 평의원 회의를 개최한 Lincolnshire Marriotte Resort의 시설과 분위기에 대해 동문들은 하나같이 “가격에 비해 아주 훌륭하고 깨끗할 뿐더러 음식도 좋고 쾌적한 곳”이라며 흡족해 했다. 뉴욕에서 온 동문은 “뉴욕의 도심지에 비해 아무리 시카고에, 또 서버브에 있다고는 해도 뉴욕에서 이 정도 시설이면 1박에 최소한 200-300달러는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Resort의 하루 객실료는 뉴욕에 비해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에 음식과 음료수 가격도 비교적 저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 행사치러 진행습씨도 전문가급 평가받아

이번 제19차 시카고 평의원 회의는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사전에 행사준비를 철저하게 한 데다가 중간 정확한 확인작업을 거쳤기 때문이다. 제10대 회장단 임원진은 이번 회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덕분이다.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를 맡았던 김정주 사무총장(사진)에 대해 각 지부 동문들이 이구동성으로 갈찬한 준비와 진행 습씨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격렬한 논쟁에 대한 적절한 중재와 화해는 물론으로 뉴욕의 모 동문은 “어쩌면 그렇게 말도 침착하고 조리있



게 잘 하느냐? 수준급이다”라고 감탄하기도 했다. 또 다른 모 동문은 “전문가 수준”이라고도 평했다.

특 집

6.25 한국전쟁 60주년



고병철(법 55)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 명예교수, 본보 편집위원장

6.25의 의미

임시경계선을 설정하고 그 이북은 소련군, 이남은 미군이 점령해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분담하자고 제의했고, 소련이 그 제안을 수락했던 것이다. 이처럼 잠정적으로 설정된 군사분계선이 고정화 된 것은 미군점령 지역과 소련점령 지역에 상호 적대적인 두개의 정부가 1948년 8월과 9월에 각각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도발= 6.25 당시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그것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왜냐하면 일요일이었던

대, 야크 전투기 100대, 폭격기 70대, T-34형 탱크 100대를 가지고 있었다.

구 소련이 붕괴한 후 공개된 비밀문서와 전 고급관리들의 증언 및 중국측에서 나온 자료를 종합해 보면 6.25의 주범이 김일성과 Stalin이고 모택동(毛澤東)은 조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김일성이 Stalin에게 간청해서 전쟁준비가 시작됐는데 모택동의 협조약속도 소련이 받아 냈고, 중공군의 개입은 중국의 전략적 계산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적지 않은 수

의안에 의해서 정통성을 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6.25가 터질 당시 서울에 상주하고 있던 UN 한국위원회는 즉시 그것이 북의 침략이라고 UN에 보고했고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해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고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이 그것을 무시하자 UN 가맹국들에게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미국 주도하에 UN 사령부가 구성되는 것을 허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결의안들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구 소련이 중국의 공산정권이 UN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항의하면서 UN을 boy-

였다. 한국이 이 협정에 조인 안한 이유는 이승만 정부가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고 한국군이 UN 사령부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조인당사자들만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고집해 왔는데 그 저의는 한국을 미국의 종속국으로 비하하고 자신의 위상을 격상시키는데 있다.

▶맺는 말= 6.25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수백만의 인명피해를 주고 1,000만의 이산가족을 낳은 민족적 수난이었다. 미국이 주도한 UN군의 개입으로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은 좌절됐고, 남한은 비약적인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성취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북한의 현실은 비참하다. 최고지도자를 우상숭배하는 1인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외부-특히 중국-의 지원이 없이는 식량과 에너지의 수요도 충족할 수 없는 최악의 경제적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북한 집권층은 핵무기에 의한 '억지력' 보강과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이버 공산국가에서의 2번째 세습적 권력승계에 전념하고 있다.

제2의 6.25가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다. 왜냐하면 남한은 북한의 전면공격을 유도할 위협이 있는 행동은 자제할 것이고 북한은 영토의 초도화와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 확실시되는 도박은 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비용과 혜택의 분석(Cost-Benefit Analysis)' 과는 거리가 먼 북한의 정책결정자들도 자살행위만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싶다.

“제 2의 625 확률은 극히 낮다. 남한은 북한의 전면공격을 유도할 위협한 행동은 자제할 것이고 북한은 영토 초도화와 정권붕괴가 확실한 도박은 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6.25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해 그 의미를 음미해 보기 위해 필자는 (1)동족상잔(同族相殘)과 국제전쟁의 성격을 혼합하고 있는 6.25사변의 근원과 (2)UN의 역할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6.25의 근원= 6.25의 근본적인 원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이기 때문에 분단의 과정을 잠깐 점검해 보자.

한반도의 분단은 태평양 전쟁의 종료를 1주일 남기고 구소련이 개입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이 히로시마(廣島)에 원자탄 폭격을 감행한 3일 후인 1945년 8월 9일-같은 날 나가사키(長崎)에도 원폭-소련군은 만주와 한반도 동북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섬멸작전을 개시했다. 공중과 해상으로부터의 폭격과 동시에 지상군을 투입시킴으로써 함경북도의 웅기와 나진은 소련군에게 점령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위 38선에서

1950년 6월 25일 남한의 정부와 군대는 전혀 전쟁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2년생이었던 필자는 그날 서울 시내에서 요란한 siren 소리가 울리고 “휴가중인 국군 장병들은 즉시 부대로 복귀하라”는 방송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 뿐 아니라 서울이 3일만에 북한군에게 함락됐다는 것은 어느 쪽이 침략자고 어느 쪽이 피해자인지를 시사해준다. 당시 남한의 국군은 전투기가 한 대도 없고 훈련용 비행기만 가지고 있었으며 탱크는 한 대도 없었는데 비해 북한 인민군은 정찰기 10

대의 한국 젊은 세대가 의면하고 있는 현실은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위협하기도 하다. 미국의 ‘수정주의’ 노선을 선호하는 학자들 중에도 남한과 미국의 비밀문서가 완전히 공개되기 전에는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진실을 신빙성있게 규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다.

▶UN(국제연합)과 한국전쟁= 한국정부의 탄생에 UN은 산파 역할을 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닌데 정부탄생을 주도한 총선거가 UN의 감시하에서 행해졌을 뿐 아니라 새로 수립된 정부가 1948년 12월 UN 총회의 결

cott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기한 결의안에 따라 16개의 UN 회원국이 병력을 제공해 UN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으므로 6.25사변은 명실공히 국제전쟁이 됐다. 당시 한국은 비회원국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을 UN군 사령부의 지휘하에 편입시키는 조치를 취해 UN군은 도합 17국의 군대로 구성됐고 그들은 북한 및 1950년 10월에 한국전에 개입한 중공군과 3년간 교전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 당사자는 UN사령부·북한·중국 3자

동문들과 6.25 한국전쟁 60주년

서적 출간, 워싱턴에 매주 생화장식

6.25한국전 60주년을 맞아 이에 대한 동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법대 58학번 동기 38명이 후세들을 위한 서적을 출간하는 한편 상대 59학번들은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관에 매주 새로운 생화를 장식, 미군의 값진 회생에 조금이나마 보답코자 하는 것이다.

‘6.25와 나’ 출간

지난 5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1958년 모교 법대 입학 동기생 38명이 ‘6.25

와 나’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서울법대 58학번들의 회고담’이란 부제로 38명의 동기들이 공저자로 참여했다. 대부분 70을 넘긴 사회원로들로 60년 전, 초등학교 5~6학년 시절 체험한 6.25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풀어 놓았다.

“6.25가 일어난 지 어언 60년, 지금도 나는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안고 산다. 선친은 6.25 발발 당시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소재 삼립국 산하 강릉 영림서의 현지 관리소 소장이었다. 후퇴하던 인민군 부

대가 야음을 틈타 면소재지를 급습, 선친을 큰 길로 끌어내 참혹하게 타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김기수 전 국회의원)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용인을 거쳐 아버지를 찾아 나섰 다. 어머니는 막내 출산후유증으로 무척 힘들어 하셨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나는 막내를 업고 걸었다. 8월 삼북두에 보은·옥천·황간·추풍령을 거쳐 대구까지 걸어간 일은 지금도 기적같다.”(김경엽 삼신울스데이트생명 전 대표이사)

매주 생화장식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 기념관(Korean War Veterans Memorial). 태극기와 성조기 사이에 나란히 꽂힌 화환에는 모교 상대 17회 동기생(59학번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동기생들의 6.25전쟁 회고담을 모은 책 ‘6.25와 나’ 출판기념회에서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최명 서울대 명예교수, 송헌일 전 숙명여대 교수, 이하우 전 서울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 황영하 총무처 전 장관, 이권영 한일시멘트 전 부회장, 한송준 기자동차 전 부회장, 이대환 토탈해운 사장, 정성진 법무부 전 장관, 김경엽 삼신울스데이트생명 전 대표이사, 이등호 재미 변호사.



동창회)들이 6.25 한국전쟁으로 사망한 미군을 기리는 글이 영어로 적혀 있다. “우리는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로부터” 이 화환은 지난해 8월 광복절부터 매주 새 것으로 바뀐다. 워싱턴 DC 인근 현운종씨(오른쪽 사진)가 갖다놓는 꽃이다. 꽃값은 한국의 모교 상대 17회 동기생들이 모금해 보내준다. 1년 동안 1만달러다.

이 ‘한국 국민의 헌화’를 처음 제안한 분은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배창모(71) 동문으로 2006년 남미여행 때 미국인 노신사를 만난 일이 계기다. 노신사는 “나는 해병대 대령으로 6.25전에 참전, 홍남부두 철수작전 책임자였다. 한국인

피란민 10만여 명을 구출하기 위해 많은 부하들이 희생돼야 했고,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배 무게를 줄이려고 무기를 바다에 던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은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할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당시 한국은 좌파 단체들이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며 폭력시위를 하던 때였다.

귀국한 배 동문은 상대 17회 동기모임 ‘17포럼’에서 이 생화 헌화를 제의해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김승만 한테크 회장, 김항덕 중부도시가스 회장, 박영주 이권산업 회장, 박수일 서울대 명예교수, 민병문 헤럴드경제 주필 등 주요 멤버들의 대찬성을 주도했다.



특 집

6.25한국전쟁 60주년, 6.25 당시 포로경험담

탈주중 잡혀 총살위기 겪어 구사일생 목숨전지고 미 포병학교 유학



김세중(공대 50)

1950년 서울대 교묘였던 소위 '뺨뺨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친구들과 함께 에스대며 총무로 누비던 생각이 난다. 아무 가게나 들어가 쓸 데 없이 가격을 묻기도 하며 '모자'를 과시하고 다녔다.

서울대 공대 교사는 청량리 외곽 신공덕리에 있어 청량리역에서 기동차를 타고 통학했다. 당시는 6월에 입학기가 시작됐다. 나는 신바람나게 일주일 쯤 통학하던 어느 날, 청량리역에 갔더니 학생들이 역 앞 광장에 몰려 숙덕거리고 있었다. 지금 이북과 전선이 나 기동차도 없고 학교는 문을 닫았다고 해 곧 집으로 돌아왔는데 멀리서 포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얼마 후 인민군들이 서울을 점령했으나 우리 식구는 피난을 못했다. 인민군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을 인민군으로 끌고 갔다. 다행히 형과 나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안방 장롱 뒤에 며칠을 숨어 들켜지 않았다.

그후 서울이 수복된 뒤 병역 징집 영장을 받고는 모교 경북고등학교에 필요한 증명서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진명여중고 교문 앞에 '육군 포병 간부후보생 모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나는 조금 망서리다가 들어가 보기로 마음 먹었다. 소집영장을 받았는데 이왕이면 장교로 입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4명의 포병 고급장교가 된 책상 뒤에 앉아 있다가 영어로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며 가족 등을 물었다. 서투른 영어로 꼬박꼬박 대답했더니 2-3일 후 대구 육군 포병사령부에 가 수속을 밟고 부산 육군 종합학교에 입학하라고 했다.

육군 포병 간부후보생

부산 육군 종합학교에서 9주간 장교교육, 진해 포병학교에서 2주간 포병훈련 뒤 11주 만에 포병소위가 돼 강원도 일선에서 전투중인 제11 포병대대로 배속받아 대대장 송찬호 중령에게 신고했다. 나의 임무는 신입 포병관측장

교로 최전방 고지에서 보병 중대장과 같이 하면서 우리 포병대대의 포격을 관측유도하는 것이었다. 포병 관측장교는 최일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종의 소모장교로도 알려졌다.

포병 관측장교는 관측병 1명과 통신병 1명을 대동한다. 최전방 고지로 올라 가는 도중 정말 비참한 장면들을 목격했다. 국군이고 인민군이고 죽은 시체들이 나무 가지에도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시체들이 한결 같이 입을 벌리고 조그마한 나무가지들이 끼워져 있지 않은가. 같이 가던 관측병이 "저거요, 누군가 금니를 빼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 도중 농가의 방문을 열어보니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방구석에 비서들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하면서 들어갔으나 할머니는 총에 맞아 그대로 사망한 것이었다.

후퇴중 적에게 포로

포병대대의 포격을 열심히 유도하던 어느 날 밤 '뺨뺨' 하는 소리가 나더니 계속해서 '뺨뺨, 뺨뺨...' 하는 총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전

내 앞을 달리던 어느 병사가 적군 총탄에 맞아 폭죽 쓰러지는 장면도 보았다. 적의 총알이 땅 위에서 튕겨 튀는 것이 보였다. 나는 발바닥이 갈라져 잘 뛰지도 못했지만 총알들이 웬일인지 나에게 맞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천운인 것 같았다. 일단 길 밑 사각으로 피한 뒤 뒤를 살펴 보고 있는데 어느 국군 병사가 근처 바위를 사이로 기어들고 있었다.

나도 따라서 기어 들어 갔다. 서너명이 움추리고 있을 수 있는 썩썩한 동굴이었다. 나중에 보니, 그 동굴은 국군, 인민군 할 것 없이 정찰병들이 급할 때 이용하던 피난동굴이었다. '살았구나' 하고 안도할 새도 없이 인민군 목소리가 들렸다. "동무들, 빨리 밖으로 나와! 아니면, 총을 쏘 테야!" 슬금슬금 기어나가 보니 굴 안에 숨어 있던 국군은 모두 6명이나 됐다. 총을 빼앗기고 나선으로 끌려 올라가 보니 어느 절간으로 국군 포로가 많아 꼭간 같은 데서 앉아 새우잠을 잤다. 아침에 마당에 끌려나가 보니 국군 수백명과 몇 명의 미군들이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옆에 있던 한 미군 사병이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반가워한 대를 얻어 피니 살 것 같았

"저 동무는 반역자요 총살해야 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 김세중 동무는 아직 나이가 어려 앞으로 수령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았다"

날 잡혀온 포로로부터 대량의 인민군이 내려온다는 첩보대로 적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상부지시에 따라 우리 포병대대는 일단 후퇴하기로 해 나는 보병 대대장에게 이동신고를 해야 했다. 보병 대대장은 쓰러져가는 어느 초가집 안방에서 상체는 발가벗은 채 혼자 막 걸리를 마셔 취해 있었다.

나는 후퇴중 몇 개 개울을 건너고 하루 종일 산길을 걸으니 발바닥이 벌겋게 부러져 올랐다. 대관령 고개를 넘어 강원도 원통리,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 1951년 5월 초순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적의 5중 포위가 돼 있었다. 우리는 일개 연대 병력이었으나, 지휘 질서가 없었고, 또 너무 지쳐 무질서한 상태라 거의 전사했고 살아남은 국군들은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포로로 잡힌 과정은 다음과 같다.

몇 끼니를 굶은 우리 장교들도 사병들의 취사를 돕던 중 이 두울 무렵 '뺨뺨' 하는 인민군 따발총성이 울리더니 계속 총성이 터지고 있었다.

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사적으로 운동장을 뛰어나가 아랫길을 향해 뛰던 중

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뒤에서 누군가 등을 발로 툭툭 차고 있었다.

"동무, 영어 할 줄 알아?" "네..., 조금은.."

"이놈에게 담배 좀 달라 해!"

미군은 담배를 꺼내 인민군 병사에게 일러 주었다. 포로 식사는 소금만 뿌린 주먹밥이었다. 열초 담배도 배급 받았는데 풀잎사귀를 말아 찌우란다. 주먹밥에 풀잎담배, 60년된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인력이 모자란 인민군은 우리 국군 포로를 전선 후방에서 인민군 부상병들을 들것으로 운반하는 일을 시켰다.

몸집이 큼직한 여성 간호장교 앞에 부상병을 들고 가면 환자의 부상상태를 눈으로 점검한 다음 환자를 갖다 놓을 곳을 지시했다. 동쪽 동(棟)으로 보내면 치료받게 되고, 서쪽 동으로 보낸 중상자들은 치료도 못받고 그대로 방치돼 결국은 죽는다. 약도 없고 치료할 인원도 없는 그들의 실정이었다.

탈주했다 잡혀

나는 탈주를 계획, 어느 날 밤 혼자 빠져 나와 남쪽으로 뛰다



미 육군 포병학교 유학시절 미군 장교와 한 장면 '찰칵' 했다.

가 우선 어느 농가 부엌을 통해 안방 천정 위로 올라갔다. 한참 있다 보니 천정 밑 방에 인민군들이 들락날락 하는 소리가 들렸다.

땀뻘없이 빠져 나갈 수가 없어 다음 날 낮까지 버텼으나 오줌은 마렵고 배는 고프고 목도 말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기어 내려가 나는 포로대에 데려가달라고 했다. 탈주에 실패한 나는 말로만 들었던 인민제관을 받게 됐다. 제관 배심원들은 포로로 잡힌 우리 국군병사들이었다. 그 중 하나가 일어서서, "저 동무는 반역자요. 총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울소!" 하면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나는 죽었구나" 하며 섬뜩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때 국군 포로관할 인민군 대대장이 육중한 함경도 사투리로, "내가 보아하니, 이 김

인적없는 어느 농가 뜰에 말려려고 내놓은 생강냉이가 널려 있어 양 호주머니에 잔뜩 집어 넣고 강원도 태백산맥을 따라 남쪽으로 달렸다.

태백산맥을 넘어오다!

계곡이나 봉우리에는 인민군들이 오가고 있어 산의 중복(中腹)만을 뚫고 나와야 했다. 밤에는 동반자와 등을 맞대고 자고, 마른 강냉이와 계곡 물을 마시며 연명했다.

사흘 밤 뒤 국군 포병부대 포격소리에 보병상사에게 내려가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남쪽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 거기서 우리는 헤어졌다.

혼자 정신없이 여섯 시간 이상 뛰고 걸면서 빠져 나오던 중 "아, 여기는 백두산, 백두산.." 하는 통신병 무전기 소리가 들려 접근해 우리 군 통신병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 반가와 뛰쳐 나왔다. C-Ration 통조림의 닭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참을 수가 없어 좀 먹자고 했다. "잡주세요!"

그의 말이 천사의 목소리 같았다. 정신없이 통조림을 먹고 있는데 보고를 받은 통신대대장 연락병이 데려다 주었다.

도중 마침 앞으로 지나가던 포병부대 차량에서 동기생을 목격하고 그의 차에 덩석 탔다.

놀란 내 친구는 "어쩐 일이냐"고 물었다. 간단한 설명을 듣고는 무척 반가와 했다. 주둔지에 도착 후 그의 대대장에게 시종일말을 설명했다.

며칠 후 그 부대를 떠났다. 마음이 놓였는지 심신이 몹시 피로해졌다. 나의 제11 포병대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대구 포사령부로 가보기로 했다. 마음이 바뀌어 서울에 있는 부모를 먼저 찾아가기로 했다.

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어 수소문해보니 식구들은 수원으로 피난갔다고 해 수원에서 겨우 식구를 찾았다. 어머니를 뵈자마자 너무 반가와 울먹이며, "어머니!" 하고 불렀다.

어머니는 "휴가 왔구나" 하시지 않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돌아온 자식인데..." 하고 야속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 동안의 내 생사를 넘었던 그 고충을 아실 수 없지 않은가.

< 13페이지에 계속 >



Michael Kyong-il Kim (공대 58)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교수

Like most Koreans, I am immensely proud of my compatriots who achieved a spectacular success in economic development, thereby placing my home country in a respectable position on the world map. I have enormous respect for all those whose toil and sacrifice brought such a miracle in only 40 short years.

Who were they, then? They were the ones who created the national plan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belief that "what ought to be done must be done," no matter how difficult; they are the ones who worked day and night to implement the plan toward success, no matter how painful; they are the ones who toiled with personal sacrifice so the plan would materialize into success-day in and day out-throughout their lives.

Of course, Koreans were not the only ones who tried hard. What was it then that really separated Koreans from the rest of humanity?

It was the cultural undercurrent that valued human decency, patriotism, and toil and education for the betterment of the future-even through the most difficult times. How hard they worked! How gladly they endured the sufferings of today for a better tomorrow!

Time has changed, and alas, with it, the value that once was so virtuous. I am gravely concerned about the future. I have been away from my motherland for more than four decades, yet I can feel the changing value of the new Korean generations: the Supremacy of Money.

I have wished that I might be wrong. Unfortunately, however, evidence suggests otherwise. I have sensed such a change from an overwhelming majority of Korean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They seem to live for money.

A few years ago, I learned that students are rushing to-and that parents are pushing them through to-the colleges that typically lead to higher-earning careers, such as medical schools and law schools. Engineering schools, which used to be most competitive and

provided the foundation for Korea's current economic prosperity, became the last choice. Neither talent nor heart seemed to matter much. What one's career would do to the nation did not seem to matter anymore either.

Medical and legal careers are both great careers, facilitating better life for the citizens. However, building a nation's wealth requires the industry that produces tangible value.

Engineering, agriculture, and the supporting sciences, are such examples. They are the ones that transform something of lesser value into another of greater value, thus creating the wealth of nation. These are the foundation stone of the economy, and abandoning the foundation is truly alarming.

Korea must do everything she can to rectify the proble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economy crumbles.

On a personal level, money is supposed to be a means to a better life-not an end in itself. Why would you enslave yourself to money, hating yourself for doing what you

your passion for money. Never sell your life! Your life is too precious. With passion, you will excel and the money will follow. You may not necessarily become a millionaire, but you will have enough to live respectably. Additionally, you will find great meaning in your life as a contributor to the betterment of the world, benefitting so many with your talent.

Another point of concern is the direction of education in Korea. It is true that Korean students excel in mathematics and science far more than their counterparts in many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Does that mean that they will be the eventual leaders of the world? I doubt it. I am told that Korean learning strategy is heavily focused on memorization.

My experiences with recent Korean graduate students also reflect these intellectual traits. To be creative, one must have the ability to see through complex situations; to reason rigorously why something makes sense under one

This type of critical thinking requires far greater intellect than merely solving problems. In fact, solving the problem is the easy part; even computers can do that (indeed, often much better than we can).

We have more important things to do. Leave the tedious work of solving well-defined problems to the computers. What we ought to focus on teaching is how to reason and, through that, develop the ability to go beyond what is known, explore unknown territory, and open up new possibilities.

By saying this, I am not implying that Koreans are not creative; indeed, we are. What I am saying is that (1) we could be much better and (2) the education to nurture greater creativity is essential to gain economic superiority in world economy. Let me explain why.

I was told today that one Korean industrial giant is going to implement a local-sourcing policy. Given the disastrous effects of outsourcing in the United States on her economy, what could sound more sensible than that?

analogy: an efficient weapon is worth a battalion and even a small army can strategically topple an empire. What the Korean industry ought to do is focus on developing an entirely noble technology to increase productivity by several orders of magnitude, such as developing enhanced robotics or other automated manufacturing. The development of such high-productivity technology is ONE key to success. Another winning strategy of even greater importance is developing innovative products, both hardware and especially software, in the coming age.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critical for both strategies. The Korean industry must move into the brain-based industry and away from traditional hand-based ones, like manufacturing.

Of course, CREATIVITY is essential for that. That is why educational reform is crucial for the success of Korea in the long run. Korea needs the brains that can see through complex problems in order to define a problem and assess its worthiness to solve. Korea needs the brains that can see the new possibilities of the yet-unknown world and create new ideas to open up the new world. That is what is required for Korea to win. Fortunately, she is particularly well suited for success. There is no country in the world with a greater desire for higher learning than Korea. Most of her citizens are college educated and she has the strongest potential to achieve a successful brain-based industry. Furthermore, that is the only way to employ everyone, thus creating a healthier social structure and great welfare for all.

So, my dear Young Men and Women: every single one of your lives is precious. You are, quite literally, the Future of the World. After my generation is gone, the world will rely on you. Discover your talents; find out where your heart is. Think hard about what you could be and, more importantly, what you should be-both for yourself and for the rest of the world. Chart the course of your life, then work hard, think creatively, look into the future, and explore the new possibilities that would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for everyone.

You will find greater meaning and enjoyment in your life while putting your proud country on the map, and you will be an important partner in promoting the prosperity of the world.

"I wish you well."

... a high-score oriented educational system that favors memorization and retrieval is bound to hinder the creative mind.

hate to do only to make money? That is literally selling your life by the hour while hating every minute of it. That is no way to live! You only have one very precious life to live. You should live the life that you value and enjoy living.

When I was young, I was amazed about the great life that Pavarotti was living. He loved singing. He might have even paid to sing, as we often do with karaoke. Yet, singing is his career.

Day in and day out, he was doing what he loved to do so passionately while enriching the lives of others at the same time. What a blessed life! But then I realized that I was equally blessed, probably more. I love every minute of my work and find a great meaning in it. I am blessed.

YOUNG MEN and WOMEN : you should live your life to its fullest. Create a life that you will be most proud of. Enjoy every minute of it.

Know who you are, know where your heart is, and follow the career that you will be passionate about. If your choice also happens to be a well-paying career,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at; however, do not trade in your talent and

situation and why not under another, and to draw their implications on what to do and how in order to best achieve the desired end. Without such ability, no amount of memory will produce anything new.

Throughout my life, I have been the most proud of Korean creativity. The brilliance of the creative achievements of the scholars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is truly remarkable.

Unfortunately, a high-score oriented educational system that favors memorization and retrieval is bound to hinder the creative mind.

There are two kinds of problems about problems: defining the problem and solving it. Once the problem is well defined, Korean students are very good at solving it.

But what good are solving skills unless you know what to solve-or, for that matter, why it needs to be solved.

In the real world, we need the intellect to see through a complex web of problems, identify the crux of the situation, and define the problem in a solvable way. Of course, even that is not enough. One has to know if the problem is worth solving-and why.

For Korea, however, that could be precisely the wrong direction depending on what would be locally sourced. Local- or out-sourcing generally refer to the use of local or foreign manpower, usually associated with manufacturing. Korea only has a small fraction of the manpower of the upcoming competitors such as China and India. When the economy is small, that does not matter; however, when it comes to a global competition, the case is totally different.

A war analogy may clarify this point: for a local dispute, the small size of population does not matter; however, for an all-out war, it is a critical factor. The odds are against the smaller population winning against the larger population.

China and India could stamp out thousands and flood the world market while Korea might be struggling to survive. Korea might not have a chance! Could Korea have any chance of winning, despite the odds? YES, ABSOLUTELY!

In the nineteenth century, Britain was the world's mightiest power-despite its being a small island. That was possible due to their superior technology. Again, take a war

기 고

지구 온난화<하>

이상기후 이미 곳곳서 발생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구속력 없어 큰일



이용탁(공대 48)
Ph.D. in Mechanical Eng.

이러한 지구온난화 결과 기후 이상변화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북극 부근지역에서는 빙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남극에서는 빙하가 증가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왜 양 극지의 빙하상태가 달리 변화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 설명은 없지만 종합적으로 북극에서 녹는 빙하보다 남극에서 증가하는 빙하량이 작기 때문에 바다의 수면은 점점 높아져, 육지 면적은 줄어들고, 수면의 면적은 증가한다. 또 양극지대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상기후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바닷물의 온도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며 바다 부근의 지역은 강우량 증가로 홍수가 발생하는 한편 온도 상승으로 내

륙지방의 땅으로부터 더 많은 수증기가 발생해 심한 가뭄과 사막화 현상도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권 온도가 지난 300년 동안 증가해 20세기동안 불과 섭씨 0.7도의 증가가 있었으나, 21세기가 끝날 때는 적어도 섭씨 2.5~3.5도까지 증가할 것이 예상됨으로 지구온난화 문제에 깊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 현상을 발견하고 미래에 닥칠 재난을 경고한 지는 오래됐으나 세계적으로 이 현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한 지는 그다지 오래 되지 않았다. 즉 1997년 체결한 일본 교토 의정서는 2008~2012년 사이에 모든 국가(주로 미국·유럽·일본 등)가 1990년을 기준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5.2% 감축하는데 합의했으나 이 문제의 심화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0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동에 대한 국제회의는 최저개발국들만 제외한 각국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계획을 토론했다. 미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한 자리에서 합의된 것은 2020년까지 '자발적 국가별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자'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구체적인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정은 아

니었으므로 개탄할 일이다. 이러한 구속력 없는 선언적 협정체결의 배경에는 국가간의 다른 경제성장 전략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실패가 작용하고 있다. 근래에 급격하게 산업화하고 있는 중국·인도와 같은 큰 나라들이 급진적으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지만 자국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것을 염려해 국제적 합의에 소극적이다. 이들 국가가 현재의 선진국 수준으로 산업화되고, 그 결과 세계적 에너지 사용분포가 어느 정도 평준화될 때까지는 이 신진공업화 국가들의 적극적 협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중진국 대열의 국가와 이해관계가 같아서, 실질적 국제협약 체결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취임 후는 세계적 경제불황 가운데도 지속적 성장을 이루면서도 지구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표명했다. 즉 "대한민국은 자진해서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감소하는 저탄소 녹색 정책을 실천해 실시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은 현명한 일이다.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이 변화해 왔다. 대체로 공화당 정권에서는 화석에너지원의 개발촉진에 호의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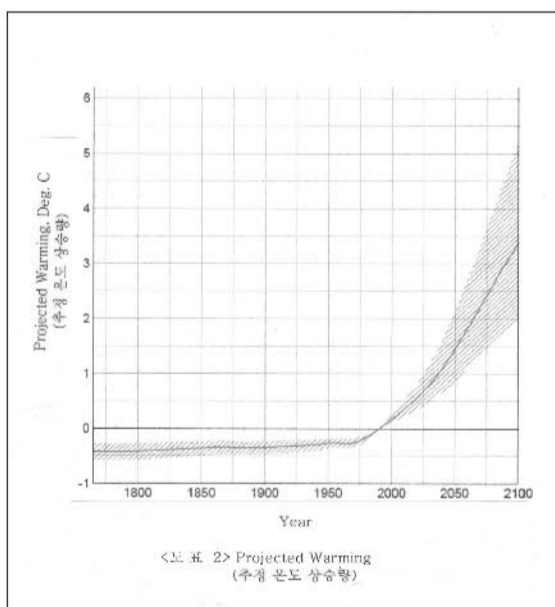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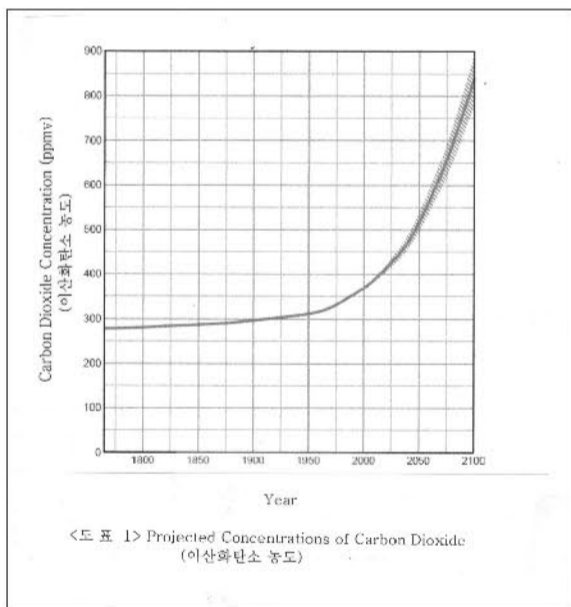


지구 온난화로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 펭귄의 서식지가 이처럼 극히 좁아질 것이다.

반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기타 에너지원, 예컨대 원자력 개발에 호의적이었다.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저탄소녹색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적 관심과 문제의 심각성은 <도표 1>과 <도표 2>를 참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도표 1>은 1800년부터 지금까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추세와 앞으로의 변화를 추정한 값이다(ppm은 이산화탄소가 공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농도의 단위로 1 ppm은 공기중 이산화탄소가 100 만분의 1이 포함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도표에서 전술한 산업혁명 후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1950년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증가율은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2100까지 추정치는 이 문제가 심각함을 잘 보여준다. 또한 앞으로도 같은 율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표 2>는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대기온도의 증가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자 함이다. 여기에 사선으로 표시된 것은 각종 통계자료 및 기후변화의 이론적 연구결과 추정치의 범위를 표시하며 그 평균치가 실선으로 표시돼 있다. 평균치에 의하면, 2100년에는 1975년 기준, 섭씨 3.4도 만큼 증가함을 추정한다. 그러나 이 상승된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로 보면 무려 섭씨 4도의 기후 온난화가 일어남을 표시한다. 이들 도표에서 보듯이 이러한 명백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소극적 국제

적 노력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지구온난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구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류는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 실천에 매진할 때다. 여러 현황을 종합해 과학자들이 설정하는 목표는 산업혁명 이전의 기준으로 섭씨 약 2도 (1.3~2.7도)까지의 지구대기권 온도의 증가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섭씨 2.5 +/- 0.7도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증가율을 현재의 연간 2~3%에서 1~3%의 감소율로 수십년 동안 계속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기술로는 이 목표의 50% 밖에 달성할 수 없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기술이 나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망된다. 첫째, 지구에 매장돼 있는 화석연료며 현재로서는 가장 풍부하고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 자원이지만, 그 매장량이 유한하므로 이 자원의 사용수명을 연장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이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새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지구온난화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경제적인 대체 재생에너지원 및 기타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넷째, 개개인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지구온난화 재난 방지를 위한 각종 노력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들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도표 1> 1800년부터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증가추세 <도표 2> 이산화탄소 농도증가와 대기온도 상관관계



< 11페이지에서 계속>
집에서 며칠 쉰 후 제11포병대대가 강원도 속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속초로 갔다. 친했던 상사 한 사람을 만나, "오랜만이오!" 하니 어리둥절 뒀걸음치며 나를 무서워하는 모습이였다. "야! 김세중 소위 아냐?" 동료 장교가 뒤에서 나를 껴안았다. 내가 좋게 맞아 쓰러진 것을 보았다는 보고를 받아 전사자로 기록, 부대에서 제사까지 지내주었는데 나를 보고 귀신 아닌가 생각했던 모양이다.

송관호 대대장은 내게 대대 작전참모 보좌관직(Assistant S-3)을 맡겼다. 밤낮으로 신발도 못 벗고 작전에 열중하던 어느 날 대대장이 '미 포병학교 초등군사반에 유학가라고 했다. 미 포병학교 유학 Oklahoma주 Fort Sill의 육군 포병학교 유학 장교 100명 중 하나가 됐다. 우리는 약 2만 톤급의 미 수송선으로 부산에서 San Francisco까지 2주일 걸려 왔다. 수송선에서는 재미있었던 일이 많았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당시 우리 장교들은 미군용 큰 군화를 신고 있었는데 한 장교는 태권도를 한답시고 갑판 위에서 발차기 하다 군화가 공중에 뜨더니 태평양 바다 속으로 풍덩 들어가버렸다. 또 하나, 당시 전화, 신문, 병 Cola도 5 cent로 장교숙소 복도에 코카콜라 자동판매기가 있었다. 장난기의 친구 하나가 5센트짜리 동전에 구멍을 뚫어 실을 맨 다음 판매기에 넣으니 덜컥 하고 병이 떨어져 나온

다. 그러면 그는 줄을 당겨 동전을 끌어냈다. 우리는 줄을 지어 공짜 콜라를 얻어 먹었다. 그러나 나중 덜미를 잡혀 전부 물어내야 했다. 이상하게 여긴 미군 담당자가 지켜보다 적발했던 것이다. 어느 주말, Texas의 Dallas 햄버스를 탔다. 한 흑인 청년이 뒷좌석에 앉지 않고 운전사 바로 뒤에 앉아 있었다. 출발 시간이 됐는데 출발을 안했다. 조금 뒤 운전사가 흑인 청년에게 머리를 까닥이며 뒤로 가란 다. 뒷좌석에 'For Blacks' 라

쓰여 있었다. 청년은 인종차별에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다. 벌리서 있던 Cowboy 모자를 쓴 한 경찰을 부격한 운전사가 힘찬 휘파람으로 신호했다. 그때야 흑인 청년이 벌떡 일어서 뒷좌석으로 갔다. 그제서야 운전사가 차를 움직였다. 나는 귀국해 광주 육군포병학교 포술학 교관보직을 받았다. 그후 육군 제1사단 산하 제58포병대대 작전참모(S-3)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안, 1953년 휴전으로 1954년 제대해 서울대에 복학할 수 있었다.

다. 그러면 그는 줄을 당겨 동전을 끌어냈다. 우리는 줄을 지어 공짜 콜라를 얻어 먹었다. 그러나 나중 덜미를 잡혀 전부 물어내야 했다. 이상하게 여긴 미군 담당자가 지켜보다 적발했던 것이다. 어느 주말, Texas의 Dallas 햄버스를 탔다. 한 흑인 청년이 뒷좌석에 앉지 않고 운전사 바로 뒤에 앉아 있었다. 출발 시간이 됐는데 출발을 안했다. 조금 뒤 운전사가 흑인 청년에게 머리를 까닥이며 뒤로 가란 다. 뒷좌석에 'For Blacks' 라

특별기고

아이티 의료 선교<하>

부활절 봉사 추억 결코 잊을수 없어 짧은 닻새, 최선 다해 진료

홍건(의대 54)

환자들이 수술돼 올 때 앰블런스로 온다기에 나가보니 보통 짐을 싣는 트럭에 두 명의 환자를 들것에 올려 놓고 주사를 빼달고 오는 것이 정말 야전 병원에서 근무하는 실감이 났다.

회중전지로 비춰가며 부러진 다리 등이 다치지 않도록 여럿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천막 병실에 들여와 침대에 눕히고 보니 우리 시설은 일류 호텔같이 보였다.

유타주에서 온 Dr. Michael과 텍사스의 Dr. Brad 두 명의 정형외과팀과 마취의사 Dr. Aaron, 내과 의사 Dr. John, 그리고 나까지 함께 환자를 세심히 진찰하고 다음 날 수술일정과 모든 수술 후 관리까지 토의하면서 밤늦게까지 시간가는 줄 몰랐다.

같이 간 많은 간호사들은 시간표로 팀을 짜서 24시간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환자 한 명 한 명을 눈동자같이 살펴 만반에 이상이 없도록 간호했다.

드디어 월요일, 외과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예정대로 하루 중 일 수술하면서 환자의 골절된 다리에 임시로 박아둔 고정 쇠막대기를 빼기도 하고 제조업체가 제대로 붙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모든 환자들이 통역사를 통해 절대로 다리를 절단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것을 보았고 염증이 생겨 고름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 임시로 빼고 고름을 빼는 등 환자에게 고통을 없애고 후유증이 적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와 내과 의사 Dr. John은 외래 진료소에서 방을 하나씩 맡아 외래 환자를 하루 중일 보는 역할을 담당했다.

비록 짧은 닻새 동안의 진료였지만 밀려들어오는 환자들을 돌려 보낼 수가 없기에 점심은

간단히 창고방에서 빵 두 조각으로 요기하고 열 세 없이 계속 환자를 보아, 나 혼자만도 250명 이상을 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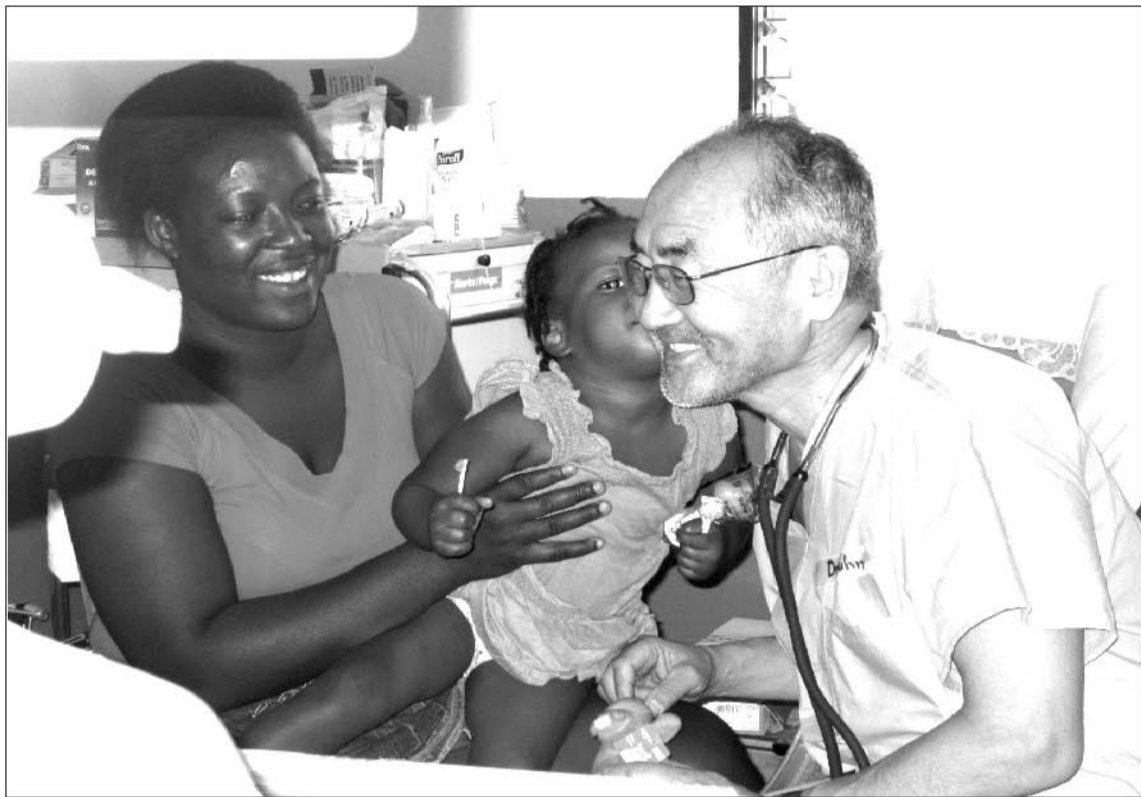
어린이들은 기생충과 말라리아를 앓는 경우가 많았고 어른 중에는 호흡기 질환, 소화장애 등 많은 분들이 빈혈과 영양실조 증상이 심했다. 드문 드문 부인과 성병, 에이즈로 인한 폐결핵, 또 생각보다도 고혈압과 당뇨환자도 제법 있었는데 약을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고 하니 우리가 며칠 분 주는 약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참 어려운 숙제였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래 진료를 계속하고 저녁이면 다시 병실에서 수술받은 환자를 돌보고 다음 날 수술 받을 환자를 검사해 수술 준비를 해주는 역할이 계속됐다.

그런데 첫날 각국에서 보내온 후원물품을 점검하던 중 초음파(Ultrasound) 기계가 있는 것을 보고 뿔 듯이 기뻐 금방 내 방으로 가지고 와서 전기를 연결해보니 잘 작동하는 것이었다. 많은 선교병원에서 초음파 기계를 갖고 싶어하는데 이번 지진으로 미국의 어느 병원에선가 보내 온 기계가 내 손에 주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믿기지 않는 기적같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에게 광고해 필요한 환자는 내가 직접 검사해 진단하게 됐다.

우선 산부인과 환자들이 배가 아프고 하혈하는 경우 자궁과 난소 등을 보고 불혹이 있는지, 출혈을 했는지 보고 임신의 경우 태아 연령을 짐작하고 이상 유무를 보게 되니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랐다.

같은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아이티 의사들, 여 의사 Dr. Jenny 와 남자 의사 Dr. Alex 에게 간단히 초음파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그 분들이 담당했던 환자가 궁금한 경우 직접 데리고 와서 같이 검사하면서 진단도 하고 가르쳐주면서 보



아이티 원주민 아이가 치료를 받은 뒤 장난감을 받아주고 홍건 동문의 땀에 뽀뽀를 하고 있다.

람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 여자는 배가 아프고 토해서 왔다가 임신 8주라 사실을 처음 알게 되기도 했다. 다음 날은 쌍둥이를 임신한 부인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아이가 들어나온다고 해서 망연자실해 울먹이는 경우도 있었다. 또 지진에 다리가 부러져 쇠봉을 밖에서 고정시킨 부인은 임신 7개월가량이었으나 태아가 움직이지 않고 심장의 박동도 끊어진 상태에서 이미 생명이 없는 아이라고 알려줄 때는 나도 같이 울고 싶었다.

이번 선교팀의 활약을 기록영화로 찍겠다고 텍사스에서 온 Vance Holmes와 제작 및 인터뷰를 하는 인도계 여자 Seema Mathur 하기도 같이 대화를 나누며 초음파에 대한 이야기를 활짝히 녹화했으니 혹시 그 영화에 나올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동안 선교를 여러 곳 다니며 방사선과 의사로서의 역할만 하거나, 일반과를 보거나 들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두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추억에 남을 일이었다. 외과 의사들이 나를 오라고 해놓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걱정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 헤어지기가 아쉬울 정도가 됐다.

우리 병원 분들이 정성으로 모아준 선물들을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하나씩 손수 전해주고 고맙다는 말은 내가 대신 들었다. 장난감을 받아주고 기뻐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벌금을 더 물더라도 많이 가져 왔더라면, 하는 욕심이 들었다. 어떤 아이는 내게 뽀뽀하고 안기는 것이 얼마나 장난감이 좋았을까, 상상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식사준비를 해주는 할머니와 여자 분들 한테도 잊지않고 선물을 했고, 운전, 통역 담당자들에게는 청바지와 셔츠를 주었더니 다음날 입고 와서 보란

듯 감사하다고 했다. 마지막 날 입고 일하던 의사가운데 파자마 같이 입고 자며 하루 종일 입고 일하던 스크립 수술복을 주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어본 후에 여 의사에게 주었더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가지고 간 가방을 모두 털어 놓고 올 때는 빈 더블백들을 들들 맡아 끈으로 묶어 작은 손가방에 넣어 공항에서 한 개도 부치는 짐이 없이 귀국했다.

목요일 오후에는 General Hospital이라는 수도에서 제일 큰 병원 혈액은행에 피를 받으러 간다는 소식에 간호사 몇 명과 같이 시내에 갈아갈 기회가 생겼다. 우리가 있는 곳은 시내에서 20 마일 정도 떨어진 외곽이라 비교적 지진피해 상황을 잘 모르다가 차 안에서지만, 끝없는 천막촌이 길가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무너진 집들을 제대로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을 직접 목격하는 기회가 됐다.

군데 군데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는 건물은 혹시나 외국 기술로 건축했는지 받대서 서있는 것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대통령궁도 폭삭 주저앉아 많은 구경꾼들이 담 사이로 드러나 보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가운데 증장비로 복구작업중이었다.

목적 병원에 가보니 그곳도 피해를 많이 받아 천막을 치고 약을 배부하는 것이었다. 길가에 노점상을 벌인 사람들을 보아도 얼마나 팔지, 누가 살지도 알 수가 없었다.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중 운전자가 지진으로 돌아가신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매장한 곳을 들려 보여 주었다. 미식축구장 4배만한 넓이와 길이에 40 피트 정도 깊이로 파고 밤낮으로 부패해가는 시체들을 트럭으로 모아다 흙으로 덮었다고 하는데 추산으로 12만~17만명의 시체가 한 곳에 묻혔다고 한다.

옆에 양지바른 동산에 임시로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돌맹이

와 함께 굴러 다니는 해골 바가지와 이상한 악취가 바로 산더미 같은 시체더미 위에 우리가 서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돌아 오는 길에 누구도 이 아기를 꺼내지 않았고 우울한 심정으로 아이티 지진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었다.

분주하게 지낸 나날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 귀국 날이 다가왔다. 아침 일찍 공항에 나가니 이미 장사진이 밖에서부터 줄지어 있어 급행료(?)를 내고 새지기해서 억지로 마이아미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이수리장 같은 파과는 달리 공항 안은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된 기분이 벌써 미국의 문턱을 디딘 듯한 인상이었다. 터미널에서 기다리는 사람이나 비행기 안에 앉은 승객 모두가 아이티에서 무슨 일이었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하고 돌아 가는 자원 봉사자들로 꽉 차 있었다.

남자들은 하나같이 수염을 깎지 못해 덩수룩한 모습이었고 여자들은 모기에 뜯겨 엉망이 된 피부를 감추지도 못하고, 피곤하지만 평은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미국으로 향했다.

마이아미 공항의 이민국 직원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 묻기에 “아이티에서 온다” 니까 “무엇했느냐” 기에 “환자들을 돌보고 왔다” 고 하니 “수고했다” 며 “Welcome Home!” 하면서 반겨주었다.

이제 짧으나마 아이티 의료 선교를 마치고 건강하고 무사히 귀가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친지들 그리고 교우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무엇보다 부활절을 포함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추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아이티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면 휴가 때 방문해 그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손꼽아 기대한다.

<참사랑감리교회 장로>



제19차 평의원의회의 | 골프대회 이모 저모



현영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 일부가 1번 홀 바로 앞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이 날 예약을 초과하는 대규모에 촉박했던 Tee Time 시간 관계로 동문 모두가 같이 모이지 못했다.

총동창회장님 엄청난 티샷
첫 홀서 무려 226야드 날려

제19차 평의원 회의가 끝난 뒤인 13일 현영 골프대회가 열린 Lincolnshire Marriott Resort 부설 골프장에는 예약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60여 명의 동문 골퍼들이 몰려들었다. 이 바람에 대회를 주관했던 차기 시카고 동창회장 김사직 동문은 골프장 측과 조정 협의에 비지땀을 흘려야 했다. 그러나 동문들이 탑승한 30여 대의 카트가 첫 홀까지 일렬로 주행하는 모습은 장관을 이루기도 했다. 이 날 새벽에 약간의 가랑비가 뿌린 뒤 9시경부터 완전히 그쳐 있었다. 시합이 개시된 11시 경부터는 내내 구름이 잔뜩 낀 날씨로 비는 오지 않아 골퍼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드디어 첫 홀. 티샷을 위해 공을 놓고 몇 차례 가벼운 연습스윙을 끝낸 임광수 총동창회장께서 호흡을 조절하고 나서 클럽을 마음껏 휘둘렀다. '따~악' 하는 소리와 함께 주~욱 뻗어나간 공이 멀리 페어웨이 약간 오른쪽에 있던 모래

언덕을 강타한 뒤 튀어나오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82세 연배의 티샷이라고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비거리라 옆에 있던 Ranger에게 "방금 친 공이 떨어진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Ranger는 카트 안에 설치돼 있는 스크린을 보여주며 226야드라고 했다. "우~와~아~" 주변 동문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서 온 김남주 기자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한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250야드 정도는 거뜰하시란다. 총동창회장님의 이같은 장타력에 우선 다른 동문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 같았다. 모 동문은 "첫 홀에서 너무 주눅이 들었던지 티샷부터 엄청 실수를 저질렀다"고 실트한 바다. 첫 홀에서만은 임광수 총동창회장님이 분명코 Longest일 것이다. 이 날 골프대회는 이렇게 시작



필드의 패션모델 여성 동문님들. 미주 동총창회 여성 골퍼계를 주름잡는(?) 동문 여성 골퍼님들이 이날 다양한 패션으로 신록의 필드를 더욱 아름답게 채색해주었다.

왜 오후 5시 반경 끝난 뒤 시상식겸 만찬은 Best Western Hotel에서 가졌다. 이 날 골프대회 영예의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여성부
- ▶Gross 1등 제영혜
- ▶Gross 2등 송순영
- ▶Net 1등 Mrs. 박영규
- ▶Closest 오명순, 이종일
- ▶Longest 제영혜, 강인애

- 남성부
- ▶Gross = 임종국
- ▶Net 1등= 송창기
- ▶Net 2등= 장철
- ▶Net 3등= 김사직
- ▶Closest= 한재은, 박용순
- ▶Longest= 박평일, 배규영



"우승 정도야 가볍지 뭐" 제영혜 LA지부 전 회장이 호쾌한 티샷을 날리고 있다. 제 전 회장은 싱글 골퍼답게 이 날 장타력으로 Longest 뿐만 아니라 세기까지 과시하며 가볍게 여성부 Gross 1등을 차지했다.



"이 정도는 돼야 확실한 서울대 맨" 시카고 지부 노영일 전 회장이 셔츠는 물론 모자와 역대 버클까지 서울대 로고가 찍힌 패션으로 가장 확실한(?) 모교 출신 ID를 보여주었다.

임광수 총동창회장 조가 첫 홀에서의 티샷 전 모습이다. 왼쪽부터 박영규 시카고 골든클럽 회장, 이준행 관악후원회 부회장, 임광수 총동창회장



제19차평의원회의 평의원회의 이모 저모 & 각 지부 동문들



임광수 총동창회장의 축사와 함께 본 회의의 막이 올랐다.



↑전야제 특별강연이 끝나고 동문들이 한 장면 '찰칵' 했다. 왼쪽부터 공대식 총동창회 부회장, 명태현 관악회 이사, 손일근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고병철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이채진 교수,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장, 이영우 시카고 동창회장, 이승자 총무국장, 조민구 편집위원, 정호 편집위원



↑뉴욕의 한경수 회장이 Nomination Committee 세칙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고 있다. ↑워싱턴 이영목 동문이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중이다.

평의원회의 이모저모

이번 19차 평의원회의는 아주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야제에서 석학 이채진 교수의 특별강연(미국 정책과 남북관계)은 특히 '천안함 폭침사건'을 배경으로 한 강연에 동문들에게 큰 공감을 주었다. 또한 본 회의에서 토의된 여러 가지 현안들은 모두 명쾌하게 협의돼 향후 총동창회 행보에 밝은 전망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미주 각 지부 동문들을 비롯해서 서울 모교 동문들, 그리고 행사 중 이모저모를 화보로 꾸며본다.



←이 날 새벽 남아공 월드컵 우리 한국의 첫 경기를 관람하는 가운데 그 리스를 2대 0으로 이겨 평의원회의를 더욱 축하해주는 듯 했다.



남가주지부
성주경 동문, 제명혜 남가주 전 동창회장, 지인수 동문, 김인종 차기 미주 총동창회장

뉴욕지부
오인석 모교 미주 발전기금 위원장, 김창수 미주 동창회 전 감사, 이진구 미주 총동창회 전 회장, 강총무 동문,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장, 한경수 뉴욕지부회장

워싱턴 지부
오인환 미주 총동창회장 후보추천 Nomination Committee 세칙위원장. 박평일 동문, 강연식 동문, 김영미 동문, 이영목 미주 총동창회 전 회장,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장, 이내원 동문.

시카고 지부
김점주 사무총장, 한재은 종신 이사, 이승자 총무국장, 박영규 감사, 박숙 재무국장, 구경희 관악후원회 부회장, 노영일 시카고 지부 전 회장, 정호 편집위원, 한상호 평의원, 이용락 미주 총동창회 전 회장,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장, 이영우 시카고 지부 회장, 조대현 편집위원.
<사진과 인물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의 순>



제19차평의원회의 평의원 회의 이모 저모 & 각 지부 동문들



김정주 사무총장의 부인 김성자 여사께서 성량이 풍부한 목소리로 '산장의 여인' 을 구성지게 부르는 가운데 이영우 시카고 지부 회장과 김동희 동문이 즉시 왈츠를 추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두 분은 동문부부 사이로 서로 응시하는 애정어린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



허철 시카고 총영사(왼쪽)와 시카고 한인회장 장기남 동문(가운데)도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심기영 변호사를 비롯한 시카고 한인사회 인사들도 초빙했다.

↑만찬뒤 노래방에서 송순영 회장이 부군 안경진 박사와 듀엣으로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를 열창했다. ↑김하석 특임부총장은 '고백' 을, ↑↑강창만 동문도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을 불러주었다.

하틀랜드 지부

오태요 동문, 배규영 하틀랜드 동창회장, 구명순 차기 회장, 오명순 동문,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장, 김명자 동문

필라델피아 지부

서중민 동문, 조화연 동문, 고병은 동문, 손재욱 필라델피아 동창회장.

오하이오 & 온타리오 지부

최인갑 오하이오 동창회장, 한성택 온타리오 동창회장, 김용현 동문, 한계순(한성택 회장 부인),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장, 박점자 동문(최인갑 회장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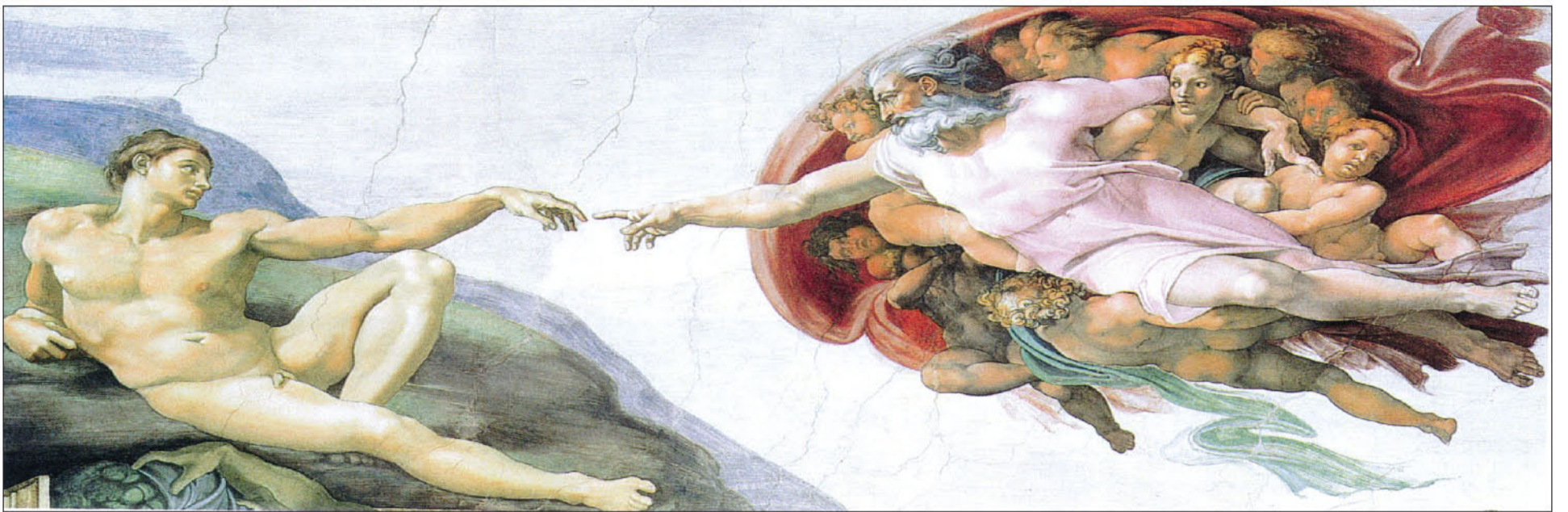
뉴 잉글랜드 & 샌프란시스코 지부

황만의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장,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장, 윤희경 뉴 잉글랜드 차기 동창회장. <사진과 인물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의 순>



세계명화 감상<4>

미켈란젤로와 그의 명작들



아담의 창조 1511 Fresco,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벽화중에서

동서고금에 가장 위대한 미술가 신이 특별히 창조한 최고의 천재

임이섭(미대 54)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술가로 우리는 미켈란젤로(Michelangelo 1475~1564 · 사진)를 꼽을 수 있다.

우리는 '천재' 라는 말을 남용하는데 그는 신이 특별히 창조한 최고의 천재적 조각가면서, 화가에 건축가였고 또한 시인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들은 모두 신을 찬미하고, 성경을 표현한 예술이었다.

1475년 플로렌스의 터스칸에서 태어난 미켈란젤로는 개인 사사를 거쳐 메디치 통치 가문의 궁중 문화생으로 수업했다.

그는 일찍부터 인체 해부학과 그 신비한 구조를 터득해 육체의 아름다운 움직임과 근육의 조화를 이해하고 숙련시켰다.

그의 미술은 탁월함이 극치에 이르렀고 예술은 숭고함의 완

성이었다. 여기에서 그가 남긴 최고의 걸작품 중 3가지를 감상하고자 한다.

PIE A 1499 marble, 68.5" x 77"

27세에 제작한 '피에타'는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대리석 조각으로 고전미와 사실주의를 이상적으로 조화한 르네상스 미술의 명작이다. 예술 조각의 도시 로마에서 최고의 걸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가장 귀중한 보석같은 조각이다. 그 완벽하고 경건함은 비길 데가 없다. 작품 속의 마리아는 유난히 젊고 순결한 모습으로 마치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듯한 착각을 갖게하여 예수의 주검과 탄생을 한 작품 속에서 보게 된다.

미켈란젤로는 이를 완성한 뒤 자신도 그 성취의 환희를 감추지 못해 그의 많은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사인한 작품이다.

DAVID 1504 marble

1504년 29세 때 완성한 거대한 대리석 조각 '데이빗'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화가 배경이다. 골리앗과 대결하려고 서 있는 17피트의 대형동상으로 그 웅장하고, 완전무결한 표현은 만인이 감탄하는 미켈란젤로의 또 하나의 대명작이다.

그는 거대한 대리석을 보았을 때 그 속에서 데이빗의 모습을 보고 깎아냈다고 한다. 글자 그대로 적나라한 인간 육체미와 데이빗의 인격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특히 얼굴 표정은

←PIE A 1499 marble, 68.5 x 77", St. Peter's Basilica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젊고 활기가 넘치면서도 확고하고 도전적인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담의 창조 1511

미켈란젤로의 명작 중 명작은 무엇보다도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 벽화다.

조각가로 유명했던 그는 처음에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벽화 제작 제안을 사양하다가 1508년 이 대작에 착수해 특별히 만든 68피트 높이의 스케펄드 사다리 위에 누워서, 조수의 도움도 별로 없이 4년에 걸쳐 완성했다. 건강은 나빴고, 경제적 어려움, 가족간 문제, 그리고 교황의 끈질긴 제촉을 이겨내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유혹, 노아의 홍수 그리고 선지자의 모습 등으로 전대 미문의 대명작을 그려냈다.

343명의 인물화들은 예술성과 창작성에서 인간



↑DAVID 1504 marble, 플로렌스 아카데미아 미술관

하나님은 왼손으로는 아직도 창조되지 않은 이브를 감싸고 그 손끝으로는 아기 예수를 가리키고 오른 손을 펴서 지상에서 자기 형상으로 지은 아담의 손끝과 교감하는 극적인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 막 창조된 아담은 아직 범죄하지 않은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갈구하며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자비한 모습으로 아담에게 접근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절실한 관계를 묘사한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겠다.



지역소식

지부 뉴스 & 동문 동정

간호장교 2기 김명희 예비역 대령

“재향군인회 발전에 이바지할 터”



“언제나 자랑스러운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나라 이념에 먹칠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간호장교 2기 출신의 동문 김명희(87·사진) 예비역 대령.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6.25의 산 증인 중 한 명인 김 동문이 최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를 위해 훈장과 배지가 주렁주렁 달린 하얀 간호장교복장으로 나섰다.

김 동문은 북한 신의주 출신으로 서울대 간호학과를 수료, 1948년 간호장교 2기생으로 육군에 입대했다.

6.25 전쟁 중 대전 2육군병원에서 일했던 김 동문은 “부상군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밤새 간호하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아져 있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제11대 육군 간호병과장을 끝으로 21년간 복무 뒤 1969년 전역한 김 대령은 1972년 정부 지원으로 뉴욕의 병원 실무경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간호 경력 인정되지 않아 47세로 간호사 자격증을 다시 마네 스테튼 아일랜드 디벨롭먼트 장애인 병원에서 10여 년간 일했다.

김 동문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동료들이 간호대령 출신답다는 말을 많이 했다. 한국 장교 출신이 일도 못한다는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2003년 한국 재향군인회에 6·25 참전용사 직계 후손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6천만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김 동문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내 남은 인생의 목표는 재향군인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장학생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6월 25일 열리는 한국정부 주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에도 초청됐다.

<한국일보 인용>



‘지혜로운 자녀교육 세미나 개최

시카고 동창회 주최

시카고 동창회(회장 이영우)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혜로운 자녀교육’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지난 5월 개최했다.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길라잡이로 시카고 글렌뷰 공원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무려 200여 명의 자녀와 학부모들이 참석해 강연장 좌석이 모자라는 대성황을 이뤘다.

이영우 회장은 “이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이 자녀 교육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해 우수학생이 되는가, 정서적

으로 안정되게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아가 사회에서 건전하게 활동하는 훌륭한 한 인격체로 지혜롭게 키울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등에 중점을 두고 Seminar 를 개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아동심리 전문의 최선옥 박사, 수학·과학 전문 강사 제임스 최 박사, 마켓대학 기계과 김규일 교수 등 3명의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을 했다.

첫 번째 강사 최선옥 박사는 “일방향적 교육방식보다 자녀를 이해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원만한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이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두 번째 강사 제임스 최 박사는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적용해 미래 진로 계획에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문으로 Marquette 대학 교수인 김규일 박사는 “자녀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서포트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각 대학별로 요구하는 학생들의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지원 대학에 맞춘 대입설계를 사전에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행사 참가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은 세미나가 더욱 자주 열릴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사진=김동희 동문>



삼가 명복을 빌니다

국제정치학계 석학 오기창 동문 작고

워싱턴 DC의 가톨릭대 부총장을 역임한 동문(법대 50) 오기창 박사(국제정치학)가 지난 5월 29일 시카고에서 향년 79세로 작고했다. 유해는 6월 1일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 구내 쉬일 가톨릭센터에서 장례식 후 노스브룩 소재 세이크리드 하트 묘지에 안장됐다.

유족은 조지타운대 한국학 전 교수로 역시 동문(법대 53)인 부인 조봉완 박사와 제인, 마리, 제임스씨 등 3자녀가 있다.

오 동문은 경기고와 모교 법대 중퇴 후 위스콘신 마켓대를 거쳐 콜럼비아대에서 수석중 UN 대표부에서 일하기도 했다. 1963년 조지타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위스콘신 마켓대 국제정치학 교수, 정치학과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고 가톨릭



대에서 부총장을 지냈다. ‘한국정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추구’를 비롯, 6권의 저서와 130여편의 논문을 남겼다.

부인 조 박사와 부부 한인 학자로 미국 학계에서 활약하는 동안 학문적, 사회적 기여를 통해 널리 존경받았던 오 박사는 한국학 및 한국문화, 역사를 주류사회에 알리는 일에 적극 나

조봉완 동문(오른쪽에서 6번째)이 현화하는 가운데 오기창 동문 유해가 세이크리드 하트 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사진= 이윤모 동문>

서기도 했다.

동문 부부는 지난 2007년 미드에틀란틱 아시아 학협회(MARAAS) 컨퍼런스에서 아시안 석학상(Distinguished Asianist Award)을 공동수상한 바 있다. 워싱턴에 오래 거주하다 은퇴 후 지난 2007년 자녀들과 가까운 시카고로 이주했다.

오·조 동문의 장녀 Jane Junghwa Oh는 MD로 Internal Medicine, Park-Nicolet Medical Systems에서 근무중이며 둘째 Marie Oh는 General Counsel로 Agilent Technology, Santa Barbara, CA에서 일하고 있다. 또 셋째 James Jaeyong Oh는 변호사로 Littler Mendelson사에서 Partner로 근무중이다.

오기창 박사님 작고를 애도하며

문성길(의대 63) 워싱턴동창회 전 회장)

그처럼 사랑하시던 부군을,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잃으신 유가족들의 슬픔을 어찌 필설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학(鶴)과 같은 선비의 삶으로 80 평생을 보내시고 만인이 원하나 극히 일부만이 누릴 수 있는 신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는 최대 은총인 교종명을 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일제 강점기와 6.25라는 민족의 불우한 시대에 청장년 시절을 보내시고 휴전 회담의 역사의 증인으로 활동하셨으며, 청운의 용지를 품고 도미하시어 그 당시 외국 출신학자로는 최초로 워싱턴 소재 가톨릭 대학 부총장으로 봉직하시며 퇴임하실 때까지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셨습니다.

한편으론 조국을 위하여 끊임없는 조언을 한국 정부, 대학교, 주미 대사에 자문을 하셨습니다.

발표하신 수많은 학술논문과 저서들 중 말년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사모님 조봉완 교수님(Retired emeritus professor-Georgetown University)과 공저, 한국 대미 외교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미 한국대사들에 대한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한편 사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시어 후배들

의 귀감이 되셨지요. 몇 년 전 경은 워싱턴을 떠나 자녀들과, 또한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시카고로 은퇴하신다고 하셨을 때, 여름에는 미시간 호반에서 불어오는 미풍과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고 겨울에는 주가지 실내 활동과 더불어 자손들과의 즐거움으로 시간가는 줄 모른다

는 말씀으로, 왜 하필이면 그 출다는 시카고로인가, 하는 의문을 말씀하셔서 해주셨지요. 신께서 고인에게 거의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리 있었습니까? 신께서 만인을 사랑하시고 또한 공평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다만 고인께서는 남들이 모르는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시고, 남다른 노력을 명석하심에 더하신 결과이겠지요.

이제 아마도 신께서 그곳에서 고인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급히 급히 중요한 일로 고인의 자문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오기창 박사님! 그 품부하신 지혜와 인자하심으로 천국과 이승에 있는 모든 이들을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만남은 이별을, 이별은 만남을 전제로 한다는 말을 굳게 믿으며 박사님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천국에서 부디 편히 쉬십시오.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2009~2010년 동창회비

Alaska

배석연 (농대58)
윤제중 (농대55)

Alabama

유성무 (상대66)
진창건 (의대55)

Arizona

김동호 (농대58)
김영철 (공대55)
박양세 (약대48)
신태성 (공대71)
유기석 (문리61)
지영환 (의대59)
진명규 (공대70)
최윤근 (공대59)

California

강경수 (법대58)
강길용 (공대46)
강신호 (사대49)
강윤희(간호72)
강정훈 (미대56)
강중경 (공대48)
강천호 (사대58)
강홍채 ()
강희창 (공대57)
고석규 (치대67)
고영철 (의대45)
고용규 (의대67)
고재천 (공대57)
곽한석 (상대46)
구무옥(문리55)
구혜선 (미대81)
권기상(경대원72)
권길상 (음대45)
권대원(경대원59)
권영달(문리50)
권영덕 (공대54)
권영재 (의대57)
권영조 (의대57)
권오형 (사대61)
권치균 (공대51)
권태삼(수의73)
김건진(문리62)
김경진 (사대70)
김경화(간호69)
김재윤 (의대57)
김광은 (음대56)
김광철 (음대59)
김광한 (농대63)
김교복 (농대63)
김근빈 (법대56)

김기택(사회과)
김기수 (공대74)
김기태 (의대52)
김낙구 (상대67)
김동산 (법대59)
김동석 (음대64)
김범수(문리61)
김병삼 (공대68)
김병연 (공대68)
김병호 (상대57)
김상엽 (공대57)
김석두 (농대58)
김석홍 (법대59)
김선기 (법대59)
김세담 (법대55)
김수백 (치대49)
김순길 (법대54)
김순자 (치대57)
김승현 (의대75)
김영기 (의대54)
김영택 (법대58)
김영배 (미대)
김영상 (법대57)
김영석(문리54)
김영석 (상대62)
김영옥(간호69)
김영춘(수의64)
김영한 (법대54)
김영희(생과69)
김용선
김용수(경영74)
김용채
김원경 (약대59)
김원갑 (공대65)
김유갑 (약대51)
김은희 ()
김익창 (의대49)
김일영 (의대65)
김재무 (상대58)
김재영 (농대62)
김재중 (치대62)
김정복 (사대55)
김정빈 (공대66)
김정애(간호69)
김정화 (미대63)
김종일 (상대)
김종표 (법대58)
김주려 (법대48)
김준일 (공대62)
김지익 (의대45)
김진호 (약대64)
김창무 (음대50)
김태웅 (의대57)
김태윤 (법대53)
김한평 (치대65)
김현철 (의대57)
김원호(문리59)

김혜숙 (미대68)
김훈(경영대74)
김희재(사대 86)
김희창 (공대64)
나두섭 (의대66)
나승옥(문리59)
남장우 (사대56)
노명호 (공대61)
노상규 (공대60)
노재민 ()
노종근(문리53)
문병권 (상대47)
문병길(문리61)
문병하 (법대51)
문인일 (공대51)
문정현 (약대54)
민병곤 ()
민병완 (약대68)
민영기 (치대61)
박 현 (상대 68)
박경호 (사대53)
박경화(문리46)
박국중 (법대57)
박동훈 ()
박민식(수의65)
박성민 (의대58)
박영옥 (사대55)
박우성 (상대77)
박원준 (공대53)
박은숙 (미대62)
박의순 (상대53)
박인수 (농대64)
박일하 (치대56)
박제인 (약대60)
박종성 (법대53)
박종수(수의58)
박종식 (의대48)
박진득 (농대67)
박찬호(자연81)
박창선 (공대55)
박취서 (약대60)
박태호 (치대66)
박한영 (치대56)
박형철 (사대72)
박희규(수의 55)
방명진 (공대73)
방정자(간호61)
배병옥 (음대58)
배효식 ()
백산옥(간호77)
백성용 (사대52)
백승호 (치대55)
백옥자 (음대71)
변영근(수의52)
부영무 (치대70)
서광일 (상대)
서승열 (공대59)

서정하 (공대55)
서치원 (공대69)
선우원근(공대66)
성락호 (치대63)
성주경 (상대68)
손남수 (미대60)
손창순 (공대69)
손학식 (공대61)
손혜정(수의대)
송기성 (사대52)
송은섭 (치대69)
송정자 (의대67)
송준섭 (농대65)
송원표(수의73)
신광재 (공대73)
신대식 (상대60)
신동국 (수의76)
신동희 (공대78)
신영규 (의대57)
신영수 (상대70)
신용규(문리61)
신우식 (치대62)
신우천 (치대67)
신정수(간호54)
신경연 (미대61)
신한경 (약대)
신희정 (미대73)
실상은 (상대54)
안백영 (공대75)
안병일 (의대63)
안현중 (음대56)
양광주(문대원58)
양명규 (의대55)
양승문 (공대65)
양은석 (음대70)
양은희 (상대56)
양창호 (상대54)
양태준 (상대56)
염동해 (농대74)
오경숙(간호54)
오계환 (공대64)
오명주(간호77)
오양숙(간호60)
오인근 (약대59)
오찬수 (약대57)
우옥자(간호60)
원미량 (미대65)
유석홍 (상대61)
유제환 (상대67)
유진형 (상대47)
유창호 (약대74)
유현순(간호69)
윤경자 (음대62)
윤성철 (상대60)
윤성희(자연58)
윤용길 (공대55)
윤장희 (상대83)
윤홍기 (의대58)
윤희성 (치대65)

이 선 (의대 42)
이강원(인문76)
이경수(수의73)
이근철 (상대56)
이근호 (공대46)
이기제 (사대52)
이기준 (법대54)
이길자 (음대57)
이남경 (음대66)
이동녕(문리66)
이동섭 (사대36)
이동성 (의대51)
이명규 (미대73)
이명희(간호67)
이방기 (농대59)
이범모 (치대74)
이범식 (공대61)
이병무 (치대70)
이상문 (의대52)
이 선 (의대 42)
이선희 (사대53)
이성용 (음대58)
이승재 (상대67)
이승훈 (상대74)
이양규 (상대57)
이영송 (치대63)
이영식 (농대58)
이영신(간호77)
이영일(문리53)
이우근 (음대46)
이원택 (의대65)
이은희 (의대48)
이의덕(신문대원70)
이재권 (법대56)
이재룡 (공대71)
이정열(간호68)
이정옥 (공대52)
이정옥(생활71)
이정옥 (공대52)
이종걸 (상대3)
이종표(간호69)
이준식 (의대61)
이준호 (상대65)
이중열 (공대69)
이중희 (공대53)
이채진 (문리)
이칭 (농대 61)
이충남 (농대61)
이탁성 (공대56)
이태로 (법대50)
이필권(보대원65)
이학태 (의대59)
이혜영 (공대56)
이현홍 (법대50)
이혜란 (미대)
이호진(간호74)
이홍표 (의대58)
이화숙(간호67)
임동규 (미대57)
임동호 (약대55)

임승쾌(문리66)
임용오 (의대57)
임정란 (음대76)
임진자 (미대60)
임진한 (치대68)
임천빈 ()
임춘수 (의대57)
임화식 (치대59)
임희영 (치대69)
장 준 (인문85)
장경우 (미대67)
장기열 (치대55)
장기창 (공대56)
장기화 (치대57)
장동석(문리66)
장인숙(간호70)
장재찬 (의대61)
장진성 (약대66)
전낙관 (사대60)
전병연 (공대54)
전성태 (사대60)
전호선(수의67)
전두호 (공대64)
전희택 (의대58)
정규남 (공대52)
정동우 (공대57)
정동석 (공대57)
정두호 (공대64)
정문용 (상대54)
정복근 (사대69)
정수만 (의대66)
정원훈 (상대38)
정인택(보대원64)
정인환 (법대54)
정재형 (약대55)
정재훈 (공대64)
정진수 (공대56)
정창희 (법대54)
정태무 (사대44)
정현진(간호68)
정황 (공대 64)
정영혜(생활71)
조동준 (의대57)
조만연 (상대58)
조상하 (치대64)
조성운 (법대46)
조재길 (사대61)
조종시 (공대60)
조종우 (공대45)
조태복 (사대60)
조태준(문리59)
주수봉 (공대67)
주영희(보대원61)
지인수 (상대 57)
진상호 (공대 66)
진희섭(문리50)
차기민 (공대85)
차중환 (사대54)
채희원 ()
최경복(간호69)

최경자 (약대63)
최덕순(간호59)
최동욱 (의대59)
최복영 (사대56)
최승륜 (상대53)
최영순(간호69)
최왕욱 (공대69)
최용완 (공대57)
최인용(문리65)
최재윤(문리54)
최준호 (치대58)
최중환 (치대70)
최태근 (법대48)
최홍수(자연87)
탁은숙(문리54)
탁혜숙 (음대67)
하기환 (공대66)
하상현(대원90)
한중철 (치대62)
한태호(인문75)
한혜순(간호70)
한효동 (공대58)
허영진(문리61)
현원영 (사대45)
홍병의 (공대68)
홍중화 (약대74)
홍진 (간호56)
홍현우(문리57)
황동하 (의대65)
황만익 (사대59)
황석우 (의대53)
황정식 (사대54)

이정필 (의대58)
이중오 (의대58)
전영자 (미대58)
전용상 (공대46)
정규영 (의대50)
정진목 (의대51)
한기민 (공대52)
한성수 (의대54)
한용현 (의대44)
황현상 (의대55)

김용우 (공대58)
김용주 (공대73)
김윤범 (의대54)
김윤하 (공대66)
김일훈 (의대51)
김재환 (사대72)
김정수(문리69)
김정주(문리60)
김종규
김준우 (의대76)
김현욱(문리67)
김현주(문리61)
노영일 (의대62)
문병훈 (사대47)
문조훈 (약대62)
문탁영(문리55)
박 수 (의대 64)
박소녀 (치대89)
박영규 (농대57)
박인숙 (미대69)
반용근 (의대53)
배영섭 (법대54)
백윤기(문리56)
안승덕 (상대51)
오경호 (농대60)
임수암 (공대62)
임한용 (공대60)
정경근 (농대59)
정양수 (의대60)
정인태 (의대58)
최우택 (공대76)

Georgia

계광무 (공대63)
김만복(문리72)
김서영(문리68)
김순옥 (의대54)
김영서 (상대54)
김용건(문리48)
김승자 (사대60)
김중구(수의73)
문중현 ()
박천기 (법대56)
안승덕 (상대51)
오경호 (농대60)
임수암 (공대62)
임한용 (공대60)
정경근 (농대59)
정양수 (의대60)
정인태 (의대58)
최우택 (공대76)

Hawaii

김승태 (의대57)
김용진 (공대50)
럼양수 (사대62)
박장부 (의대61)
유제호(문리57)
윤상철 (약대47)
전영표(문리55)

Colorado

송유준 (의대64)
이석호 (공대66)
장화용 (사대61)
표한승 (치대58)

Connecticut

김기훈 (상대52)
김내도 (공대62)
라찬국 (의대58)

Delaware

문내옥 (의대67)
배성호 (의대65)
이제성 (공대70)

Florida

김경권 (의대58)
문상규 (의대56)
박창익 (농대64)
신창제(수의59)
안창현 (의대55)
양관기 (의대57)
엄두광(문리60)
오석일 (의대64)
윤홍철 (의대56)

Illinois

강수상 (의대47)
강영국(수의67)
강창만 (의대58)
강화영(문리50)
계훈택 (의대55)
고병철 (법대55)
곽영로(수의72)
구경희 (의대59)
권호연(문리57)
김갑중 (의대57)
김광철 (사대47)
김길중 (의대59)
김병윤(문리65)
김사직 (상대59)
김상기(문리56)
김선철 (의대58)
김영호 (의대71)
김용성 (상대54)

서울대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납부서

동창회비 (회보 구독료 포함)
• 회계년도
2009. 7. 1.- 2010. 6. 30.
2010. 7. 1.- 2011. 6. 30.
관의 후원금
\$200 \$200+ \$500 \$1,000
\$200 \$200+ \$500 \$1,000
종신 예사비 \$3,000
모교발전기금 [백만원기금]
지부 분담금

작성일: 년 월 일
성명:(한글) (영문)
단체대: 대학원: 학과: 입학 년도:
현주소:
전주소:
전화/집: Cell: E-mail:
* 지불방법 (Check or Credit Card)
Amount: \$
Card Holder Name:
Card: Visa Master Card
Card No.: Security Code: Exp. Date:
Signature:
Send to:
SNU Alumni Association
456 Frontage Road, #3 Northfield, IL 60093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전현일 (농대62)
정호 (공대 62)
정광훈 (공대60)
정병욱 (의대53)
정승규 (공대60)
정영숙 (사대59)
정지희 (문리59)
제환수 (사대65)
조철 (공대 49)
조대현 (공대57)
조중행 (의대63)
조형원 (약대50)
지예자 (미대65)
진판보 (의대72)
진보린 (약대56)
천양곡 (의대63)
최경화(간호대4)
최길용(문리57)
최순분(간호57)
최순용(문리61)
최애옥(간호47)
최의필 (의대53)
최혜숙 (의대53)
최호승 (사대58)
최희수(문리67)
한의일 (공대62)
한재은 (의대59)
한성택(문리55)
황치룡(문리65)
홍혜례 (사대72)

Indiana
곽일성 (의대60)
김연화 (음대68)
김정숙 (약대51)
박연희(간호61)
송순영(문리52)
이종일 (의대65)
임영진 (의대54)
하상태 (의대57)
한상호 (의대56)
한원중(수의83)

Iowa
서만길 (의대61)

Kansas
구명순(간호66)
배규영 (사대68)
임하진 (의대79)

Louisiana
강영빈(문리58)

Massachusetts
김문소(수의61)
김병국 (공대71)
김영길 (사대59)
김은한 (의대60)
김제호 (상대56)
도은희 (농대61)
민길우(문리61)
박기순(간호70)
박재영 (문리48)
박종진 (의대56)
신상철 (공대74)
안효태(문리65)
윤상래(수의62)
윤영자 (미대60)
윤은상 (상대66)
윤희경 (문리62)
이금하(문리69)
이은주 (음대73)
이의인 (공대68)
이재용 (의대93)
이희규 (공대69)

Maryland
강경구 (사대49)
강길중 (약대69)
강창욱 (의대55)
공순옥(간호66)
곽홍 (의대45)
권철수 (의대68)
김철 (의대 62)
김명자 (법대52)
김병오 (의대63)
김승태(문리66)
김중호 (약대68)
김창호 (법대56)
김희용 (약대74)
남옥현(경영84)
노광욱 (치대39)
노상철 (의대63)
박명영 (의대68)
박찬호 (약대67)
석근범(문리61)
소숙영(간호64)
송병준 (약대68)
신구용 (공대59)
신상균 (의대52)
안창호 (약대70)
오인환(문리63)
오혜련 (약대55)
유덕영 (공대57)
이영수 (공대59)
이유세 (사대72)
이제승 (의대55)
이준영 (치대74)
이태영 (법대60)
이항열 (법대57)
임종식 (의대51)
임필순 (의대54)
장효강 (공대66)
전정철 (공대55)
정요셉 (사대70)
조세진 (의대65)
홍영석 (공대58)

Indiana
곽일성 (의대60)
김연화 (음대68)
김정숙 (약대51)
박연희(간호61)
송순영(문리52)
이종일 (의대65)
임영진 (의대54)
하상태 (의대57)
한상호 (의대56)
한원중(수의83)

Iowa
서만길 (의대61)

Kansas
구명순(간호66)
배규영 (사대68)
임하진 (의대79)

Louisiana
강영빈(문리58)

Massachusetts
김문소(수의61)
김병국 (공대71)
김영길 (사대59)
김은한 (의대60)
김제호 (상대56)
도은희 (농대61)
민길우(문리61)
박기순(간호70)
박재영 (문리48)
박종진 (의대56)
신상철 (공대74)
안효태(문리65)
윤상래(수의62)
윤영자 (미대60)
윤은상 (상대66)
윤희경 (문리62)
이금하(문리69)
이은주 (음대73)
이의인 (공대68)
이재용 (의대93)
이희규 (공대69)

Minnesota
권학주 (치대59)
김권식 (공대61)
김영남 (사대53)
김태환 (의대58)
남세현 (공대67)
박상빈
배병철(문리65)
변우진(인문81)
성육진 (치대87)
송창원(문리53)
왕규현 (의대56)
주한수(수의62)

Missouri
김승희 (법대55)
Mississippi
김진호 (의대60)
N.Carolina
마동일 (의대57)
이석형 (사대56)
전길표 (음대64)
조동립 (의대52)
최종진 (의대63)
최화진 (음대85)
한광수 (의대57)
홍훈(문리 75)

Nebraska
김명자(문리62)
김택수 (의대57)
오태요 (의대56)
이상문 (상대57)

New Jersey
강석권 (법대61)
고순정(간호69)
고애자 (사대58)
고영수 (미대57)
곽상준 (약대55)
곽선섭 (공대61)
곽문용 (미대61)
권오근 (상대58)
기도섭 (공대67)
김경애(간호55)
김규화 (상대63)
김기용 (치대49)
김대인 (의대59)
김동진 (사대67)
김명철 (공대60)
김봉희 (공대69)
김세환 (공대65)
김수일 (약대60)
김양호 (의대51)
김연석 (상대54)
김영애 (사대56)
김영일 (약대58)
김영진(문리50)
김영철 (의대55)
김완주 (의대54)
김옥현 (의대59)
김윤수 (상대50)
김은섭 (의대53)
김자익 (의대69)
김정빈 (약대54)
김중석(문리55)
김태호 (약대63)
김한중 (의대56)
김훈일 (공대60)
김희국 (약대54)
라준국 (공대47)
류제은 (미대71)
박건이 (공대60)
박경원 (미대66)
박대규 (사대55)

Maine
채도경 (의대59)

Michigan
강태수 (의대65)
권순관 (공대60)
김국화 (약대69)
김용호 (약대56)
김우신 (의대60)
김원정 (의대69)
김정일 (의대57)
남상용 (공대52)
남성희 (의대58)
박준환 (의대55)
서영일 (의대61)
오동환 (의대65)
유효명 (의대58)
육태석 (의대61)
이민우 (의대61)
이상일 (의대54)
이성길 (의대65)
이영모 (의대53)
이종기 (농대55)
이한중 (의대59)
장철 (의대65)
장병호 (의대66)
정성순 (음대68)
조병권 (공대64)
차대양 (공대55)
채무원 (의대59)
최공창 (의대55)
하계현 (공대64)

Louisiana
강영빈(문리58)

Massachusetts
김문소(수의61)
김병국 (공대71)
김영길 (사대59)
김은한 (의대60)
김제호 (상대56)
도은희 (농대61)
민길우(문리61)
박기순(간호70)
박재영 (문리48)
박종진 (의대56)
신상철 (공대74)
안효태(문리65)
윤상래(수의62)
윤영자 (미대60)
윤은상 (상대66)
윤희경 (문리62)
이금하(문리69)
이은주 (음대73)
이의인 (공대68)
이재용 (의대93)
이희규 (공대69)

박명정 (문리61)
박성일 (상대58)
박성호 (공대57)
박은규 (약대72)
박익수 (사대52)
박진우 (상대77)
박태호 (상대76)
배병애(간호47)
서정용 (약대63)
선우문혜(약대0)
선우치민(약대4)
성욱경(간호70)
손갑수 (약대59)
손광호 (의대59)
손완배 (농대70)
송기인 (의대60)
송영익 (농대60)
송철철 (공대48)
신두식 (의대52)
양문석 (상대54)
양성택
오용호 (의대 6)
유계룡 (공대58)
유호근(문리71)
윤갑석 (공대53)
윤순철 (사대44)
윤준식 (법대58)
윤현남 ()
이경림 (상대64)
이경태 (상대64)
이능석 (의대57)
이명재 (상대54)
이문휘(문리54)
이유찬 (의대58)
이제덕 (법대60)
이제원 (법대60)
이진구 (농대60)
이종석 (상대57)
이태형(문리62)
이훈영 (상대61)
장대욱 (음대57)
정순기(문리69)
정준영(문리67)
조정현(수의58)
주선후 (음대54)
최영태(문리67)
최원로 (의대42)
최준희 (의대58)
최희웅(문리61)
추재욱 (의대57)
탁명양 (약대50)
한인섭 (약대)
한태진 (의대58)
허선영 (의대58)
현건섭 (공대55)
홍사란(문리61)

Missouri
김승희 (법대55)
Mississippi
김진호 (의대60)
N.Carolina
마동일 (의대57)
이석형 (사대56)
전길표 (음대64)
조동립 (의대52)
최종진 (의대63)
최화진 (음대85)
한광수 (의대57)
홍훈(문리 75)

Nebraska
김명자(문리62)
김택수 (의대57)
오태요 (의대56)
이상문 (상대57)

Maine
채도경 (의대59)

Michigan
강태수 (의대65)
권순관 (공대60)
김국화 (약대69)
김용호 (약대56)
김우신 (의대60)
김원정 (의대69)
김정일 (의대57)
남상용 (공대52)
남성희 (의대58)
박준환 (의대55)
서영일 (의대61)
오동환 (의대65)
유효명 (의대58)
육태석 (의대61)
이민우 (의대61)
이상일 (의대54)
이성길 (의대65)
이영모 (의대53)
이종기 (농대55)
이한중 (의대59)
장철 (의대65)
장병호 (의대66)
정성순 (음대68)
조병권 (공대64)
차대양 (공대55)
채무원 (의대59)
최공창 (의대55)
하계현 (공대64)

Louisiana
강영빈(문리58)

Massachusetts
김문소(수의61)
김병국 (공대71)
김영길 (사대59)
김은한 (의대60)
김제호 (상대56)
도은희 (농대61)
민길우(문리61)
박기순(간호70)
박재영 (문리48)
박종진 (의대56)
신상철 (공대74)
안효태(문리65)
윤상래(수의62)
윤영자 (미대60)
윤은상 (상대66)
윤희경 (문리62)
이금하(문리69)
이은주 (음대73)
이의인 (공대68)
이재용 (의대93)
이희규 (공대69)

김병경 (약대61)
김병숙(보대원64)
김병술 (약대52)
김석식 (의대58)
김석자 (음대61)
김성건 (공대56)
김세중 (공대50)
김승호 (공대71)
김영배 (공대78)
김용술 (상대56)
김용연(문리63)
김용학 (법대70)
김우영 (상대60)
김은태 (의대46)
김재경 (농대58)
김정순 (법대53)
김정희 (간호69)
김종원 (사대58)
김종욱 (사대51)
김진승(문리63)
김진자 (간호60)
김창수 (약대64)
김태욱 (공대55)
김학수 (상대65)
김해암 (의대58)
김현수(자연53)
김현중 (공대63)
김형찬 (약대54)
남상래(간호66)
노용면 (의대49)
라홍채 (공대62)
문소자 (음대60)
민발식 (의대60)
박고자 (음대61)
박상원(문리54)
박수안 (의대59)
박순영 (법대56)
박정식 (사대59)
박찬영 (약대)
박현성 (약대60)
배상규 (약대61)
백운자(간호67)
서정애 (음대67)
서기병 (상대55)
서상철 (의대49)
서영숙(간호67)
선우건영(의대63)
성기호 (약대57)
손경택 (농대57)
손주현 (의대)
송영순 (사대60)
신남철 ()
신의경 (음대55)
안제현 (상대62)
안태홍 (상대65)
양기영 (의대49)
양금자 (미대69)
양명자 (사대63)
양세관(경대원66)
오인환 (의대67)
우상영 (상대55)
유광현 (의대58)
유무영 (공대66)
유제섭 (공대65)
유정자(간호63)
유진일 (의대60)
윤병남 (사대62)
윤병하 (농대80)
윤영섭 (의대57)
윤인숙(간호63)
윤정숙 (약대50)
이국진 (사대51)
이규용 (의대37)
이근수 (상대64)
이대연 (약대65)
이대영(문리64)
이배용

Missouri
김승희 (법대55)
Mississippi
김진호 (의대60)
N.Carolina
마동일 (의대57)
이석형 (사대56)
전길표 (음대64)
조동립 (의대52)
최종진 (의대63)
최화진 (음대85)
한광수 (의대57)
홍훈(문리 75)

Nebraska
김명자(문리62)
김택수 (의대57)
오태요 (의대56)
이상문 (상대57)

Maine
채도경 (의대59)

Michigan
강태수 (의대65)
권순관 (공대60)
김국화 (약대69)
김용호 (약대56)
김우신 (의대60)
김원정 (의대69)
김정일 (의대57)
남상용 (공대52)
남성희 (의대58)
박준환 (의대55)
서영일 (의대61)
오동환 (의대65)
유효명 (의대58)
육태석 (의대61)
이민우 (의대61)
이상일 (의대54)
이성길 (의대65)
이영모 (의대53)
이종기 (농대55)
이한중 (의대59)
장철 (의대65)
장병호 (의대66)
정성순 (음대68)
조병권 (공대64)
차대양 (공대55)
채무원 (의대59)
최공창 (의대55)
하계현 (공대64)

Louisiana
강영빈(문리58)

Massachusetts
김문소(수의61)
김병국 (공대71)
김영길 (사대59)
김은한 (의대60)
김제호 (상대56)
도은희 (농대61)
민길우(문리61)
박기순(간호70)
박재영 (문리48)
박종진 (의대56)
신상철 (공대74)
안효태(문리65)
윤상래(수의62)
윤영자 (미대60)
윤은상 (상대66)
윤희경 (문리62)
이금하(문리69)
이은주 (음대73)
이의인 (공대68)
이재용 (의대93)
이희규 (공대69)

이병무 (법대57)
이성구 (약대56)
이성기(간호72)
이성수 (공대56)
이영숙(간호56)
이영애 (치대52)
이영애 (농대59)
이정복 (공대58)
이정은 (의대58)
이주경 (상대68)
이준행 (공대48)
이해경 (약대62)
이현호 (공대58)
이희경 (의대55)
이희자(간호70)
임건식 (음대54)
임공세 (의대61)
임대목 (의대58)
장기선 (약대61)
장영식 (법대59)
장영자(간호68)
전병삼 (약대54)
전성진 (사대58)
정인식 (상대58)
정진선(간호82)
정진우 (의대66)
정택수(문리46)
조남천 (사대59)
조대영 (공대61)
조숙자(간호59)
조양 (문리 62)
조중수 (공대64)
조태환 ()
조황환 (치대65)
진봉일 (공대50)
차국만 (상대56)
천병수 (공대70)
최구진 (약대54)
최석진 (약대)
최수용 (상대55)
최영혜(간호64)
최일단 (미대55)
최태식 (의대69)
최한용 (농대58)
최형무 (법대69)
한경수(문리57)
한승선 (의대70)
한승원 (미대60)
한영수 (의대61)
한홍진 (의대55)
한홍호 (법대48)
한호 ()
함종금(간호66)
허병렬 (사대42)
홍성경 (의대58)
황문하(수의76)
황성현 (공대56)
황유규 (의대66)

Missouri
김승희 (법대55)
Mississippi
김진호 (의대60)
N.Carolina
마동일 (의대57)
이석형 (사대56)
전길표 (음대64)
조동립 (의대52)
최종진 (의대63)
최화진 (음대85)
한광수 (의대57)
홍훈(문리 75)

Nebraska
김명자(문리62)
김택수 (의대57)
오태요 (의대56)
이상문 (상대57)

Maine
채도경 (의대59)

Michigan
강태수 (의대65)
권순관 (공대60)
김국화 (약대69)
김용호 (약대56)
김우신 (의대60)
김원정 (의대69)
김정일 (의대57)
남상용 (공대52)
남성희 (의대58)
박준환 (의대55)
서영일 (의대61)
오동환 (의대65)
유효명 (의대58)
육태석 (의대61)
이민우 (의대61)
이상일 (의대54)
이성길 (의대65)
이영모 (의대53)
이종기 (농대55)
이한중 (의대59)
장철 (의대65)
장병호 (의대66)
정성순 (음대68)
조병권 (공대64)
차대양 (공대55)
채무원 (의대59)
최공창 (의대55)
하계현 (공대64)

Louisiana
강영빈(문리58)

Massachusetts
김문소(수의61)
김병국 (공대71)
김영길 (사대59)
김은한 (의대60)
김제호 (상대56)
도은희 (농대61)
민길우(문리61)
박기순(간호70)
박재영 (문리48)
박종진 (의대56)
신상철 (공대74)
안효태(문리65)
윤상래(수의62)
윤영자 (미대60)
윤은상 (상대66)
윤희경 (문리62)
이금하(문리69)
이은주 (음대73)
이의인 (공대68)
이재용 (의대93)
이희규 (공대69)

이원호 (의대53)
이의삼 (사대58)
정길화 (의대59)
조성규 (의대59)
채혜숙(문리70)
최인갑 (공대57)
홍준표 (의대58)
Oklahoma
김경숙(생활70)
이상강 (의대70)
Oregon
김상만 (음대46)
김상순 (상대67)
김진호 (사대59)
김영자(간호53)
성성모 (사대67)
이은설(문리53)
최근영 (법대63)
최동근(문리50)
한영준 (사대60)
Pennsylvania
강영배 (농대59)
강준철 (사대59)
고병은(문리55)
김국간 (치대64)
김영남 (의대61)
김영우 (공대55)
김용국 (의대58)
김은옥(간호78)
김재술 (약대56)
김주진 (법대54)
남영선 (공대)
민홍식(수의60)
박영한 (약대68)
변국환 (공대75)
서중민 (공대64)
손재욱(가정77)
송영두 (의대56)
신선자 (사대60)
심영섭 (공대74)
심완섭 (의대67)
양은택 (의대58)
염극용 (의대54)
오진석 (치대56)
유영길 (의대70)
윤원길 (의대59)
윤정나 (음대57)
이규호 (공대56)
이만택 (의대52)
이병인(수의69)
이봉재 (공대95)
이성숙(생활74)
이수경 ()
이영재 (상대58)
이지훈 (미대)
이혜원 (의대55)
장성환 (의대55)
전무식(수의61)
전방남 (상대73)
전희곤 (의대54)
정영자 (치대63)
정용남(문리60)
정태광 (공대74)
정홍택 (상대61)
제갈은(문리59)
조성권 (공대86)
조영일 (공대68)
조영호 (음대 6)
주기목(수의68)
최종무 (상대75)
Rhode Island
오세자(인문71)

Missouri
김승희 (법대55)
Mississippi
김진호 (의대60)
N.Carolina
마동일 (의대57)
이석형 (사대56)
전길표 (음대64)
조동립 (의대52)
최종진 (의대63)
최화진 (음대85)
한광수 (의대57)
홍훈(문리 75)

Nebraska
김명자(문리62)
김택수 (의대57)
오태요 (의대56)
이상문 (상대57)

Maine
채도경 (의대59)

Michigan
강태수 (의대65)
권순관 (공대60)
김국화 (약대69)
김용호 (약대56)
김우신 (의대60)
김원정 (의대69)
김정일 (의대57)
남상용 (공대52)
남성희 (의대58)
박준환 (의대55)
서영일 (의대61)
오동환 (의대65)
유효명 (의대58)
육태석 (의대61)
이민우 (의대61)
이상일 (의대54)
이성길 (의대65)
이영모 (의대53)
이종기 (농대55)
이한중 (의대59)
장철 (의대65)
장병호 (의대66)
정성순 (음대68)
조병권 (공대64)
차대양 (공대55)
채무원 (의대59)
최공창 (의대55)
하계현 (공대64)

Louisiana
강영빈(문리58)

Massachusetts
김문소(수의61)
김병국 (공대71)
김영길 (사대59)
김은한 (의대60)
김제호 (상대56)
도은희 (농대61)
민길우(문리61)
박기순(간호70)
박재영 (문리48)
박종진 (의대56)
신상철 (공대74)
안효태(문리65)
윤상래(수의62)
윤영자 (미대60)
윤은상 (상대66)
윤희경 (문리62)
이금하(문리69)
이은주 (음대73)
이의인 (공대68)
이재용 (의대93)
이희규 (공대69)

주창준 (의대52)
S. Carolina
김수산 (의대52)
Tennessee
용준식 (의대48)
정성장 (의대43)
Texas
곽노환(문리48)
곽용길(문리59)
김기준 (공대61)
김대준 (공대81)
김동수 (의대61)
김석규(간호57)
김영욱(가정74)
김영창 ()
김의신 (의대60)
김정훈 (공대46)
김진만 (공대57)
김중열 (의대)
김태훈 (공대57)
김현경(간호70)
김형진 (법대53)
명인성 (공대50)
민동식 (의대70)
고병은(문리55)
박민자 (사대58)
박석규(간호59)
박영규 (사대66)
신달수 (공대59)
유근용 (법대50)
유길선 (의대73)
유세만 (공대59)
유환 (농대 56)
이규진 (약대60)
이길영(문리59)
이진원 (공대59)
이희덕 (농대68)
임재숙
전중희 (공대56)
정철룡 (의대55)
조시호(문리59)
조진태(문리57)
진기주 (상대60)
최관일 (공대54)
최귀복 (공대72)
최성호(문리58)
최용현 (의대53)
탁순덕 (사대57)
황의찬 (사대76)
Utah
김성완(문리59)
김인기(문리58)
배유한 (공대73)
정석화 (공대)
Virginia
고무환 (법대57)
곽근영 (사대51)
김광배 (공대49)
김기봉 (공대63)
김세향 (공대62)
김수용 (문리59)
김재동(문리70)
남광순 (음대64)
남춘일 (사대69)
문성길 (의대63)
박경훈 (농대55)
박엽(사회대80)
박용걸 (약대56)
박윤수(문리48)
박일영(문리59)
박평일 (농대69)

Missouri
김승희 (법대55)
Mississippi
김진호 (의대60)
N.Carolina
마동일 (의대57)
이석형 (사대56)
전길표 (음대64)
조동립 (의대52)
최종진 (의대63)
최화진 (음대85)
한광수 (의대57)
홍훈(문리 75)

Nebraska
김명자(문리62)
김택수 (의대57)
오태요 (의대56)
이상문 (상대57)

Maine
채도경 (의대59)

Michigan
강태수 (의대65)
권순관 (공대60)
김국화 (약대69)
김용호 (약대56)
김우신 (의대60)
김원정 (의대69)
김정일 (의대57)
남상용 (공대52)
남성희 (의대58)
박준환 (의대55)
서영일 (의대61)
오동환 (의대65)
유효명 (의대58)
육태석 (의대61)
이민우 (의대61)
이상일 (의대54)
이성길 (의대65)
이영모 (의대53)
이종기 (농대55)
이한중 (의대59)
장철 (의대65)
장병호 (의대66)
정성순 (음대68)
조병권 (공대64)
차대양 (공대55)
채무원 (의대59)
최공창 (의대55)
하계현 (공대64)

Louisiana
강영빈(문리58)

Massachusetts
김문소(수의61)
김병국 (공대71)
김영길 (사대59)
김은한 (의대60)
김제호 (상대56)
도은희 (농대61)
민길우(문리61)
박기순(간호70)
박재영 (문리48)
박종진 (의대56)
신상철 (공대74)
안효태(문리65)
윤상래(수의62)
윤영자 (미대60)
윤은상 (상대66)
윤희경 (문리62)
이금하(문리69)
이은주 (음대73)
이의인 (공대68)
이재용 (의대93)
이희규 (공대69)

박형순 (의대54)
백순 (법대 58)
변만식 (사대49)
서희열 (의대55)
신용계 (의대62)
안병협 (공대58)
안태민 (공대62)
오원섭(수의53)
유홍열(문리74)
윤개일 (약대60)
이내원 (사대58)
이승희 (음대55)
이연규 (미대60)
이영목 (공대59)
이윤주 (상대63)
이형모 (의대45)
정계훈(문리55)
정원자 (농대62)
최규식 (상대64)
최동현(문리50)
최완열 (상대56)
최준호 (공대60)
한의생 (수의60)
Vermont
김신형 (의대50)
Washington
고광선 (공대57)
구본영 (공대65)
김영일 (공대53)
김윤국(문리49)
김인배(수의59)
김재훈 (공대72)
김주용 (의대56)
박홍 (상대 68)
박종수 (상대74)
박진수 (의대56)
변종혜 (법대58)
송준 (공대55)
송애라 (음대75)
신정범 (법대73)
양용관(수의62)
유성열 (공대72)
이정희 (약대82)
이대연 (사대58)
이순모 (공대63)
이종성 (의대58)
이창렬 ()
전병택 (상대65)
최경수 (사대52)
최준한 (농대58)
홍계인 (음대60)
황재규 (공대54)
Wisconsin
김영화(문리65)
이기억(문리46)
이영관 (의대61)
장홍(문리61)
장세근 (의대57)
전장호 (공대55)
West Virginia
김홍택 (문리52)
정약훈 (의대47)

Missouri
김승희 (법대55)
Mississippi
김진호 (의대60)
N.Carolina
마동일 (의대57)
이석형 (사대56)
전길표 (음대64)
조동립 (의대52)
최종진 (의대63)
최화진 (음대85)
한광수 (의대57)
홍훈(문리 75)

Nebraska
김명자(문리62)
김택수 (의대57)
오태요 (의대56)
이상문 (상대57)

Maine
채도경 (의대59)

Michigan
강태수 (의대65)
권순관 (공대60)
김국화 (약대69)
김용호 (약대56)
김우신 (의대60)
김원정 (의대69)
김정일 (의대57)
남상용 (공대52)
남성희 (의대58)
박준환 (의대55)
서영일 (의대61)
오동환 (의대65)
유효명 (의대58)
육태석 (의대61)
이민우 (의대61)
이상일 (의대54)
이성길 (의대65)
이영모 (의대53)
이종기 (농대55)
이한중 (의대59)
장철 (의대65)
장병호 (의대66)
정성순 (음대68)
조병권 (공대64)
차대양 (공대55)
채무원 (의대59)
최공창 (의대55)
하계현 (공대64)

Louisiana
강영빈(문리58)</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로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8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9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Kang CPA's
(김경우 광경옥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Kim & Youn A Prof.Corp
윤흥원 (사대 81)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흥준 (상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재정설계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한인헤드윅 크레딧유니온
이영일(문리대 53) (213) 368-9000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Mirae Bank
박광순(상대 63) (213) 427-7951
3255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리테일러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테일러/보석업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S.Y.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 (법대 58)
(562) 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치대 65) (714) 724-2580
26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6@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삼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천빈(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768-5161

11672 Tudord St.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묘(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청문장학회
오재민(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중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상담/교육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촌배 교육상담센터
이촌배(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서비스/열석가공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명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 / 동물병원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삼(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 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숙박업/호텔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8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스타아/하드웨어/엔지니어링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감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 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태평양 상사
하상원(대학원 90) (310) 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운화(상대 78)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행장
유재환(상대 67)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민(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중규 치과그룹
* 권중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홍조 치과
** 오홍조(치대 56) (213) 382-8205
288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명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김재중 치과
김재중(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 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김민권 치과
 김민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 #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 #207 Los Angeles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의료/내과/전문외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LA 내과그룹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정수만 암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태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him, M.D.
 임용오(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323) 268-8308
 1325 Via Del Reg. South Pasasena CA 91030

김광은 척추신경
 김광은(음대 56) (323) 468-1001
 4711 Oakwood Ave. #100 Los Angeles CA 90004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마취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냉장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종(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전기전등)
 경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838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l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종교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칼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avl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컨설팅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francisco CA 94104

컴퓨터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안방의원/안약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Life Acupuncture Clinic
 김병삼(공대 52) (323) 581-0909
 7024 Seville Ave. #A Huntington Park CA 90255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샌디에이고

Sierra Padre Mill Co.(건축자재 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753-6905
 555.N. Vulcan Ave. Encinitas CA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의대 78) (858) 525-3222
 4228 Conroy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가주

상담/컨설팅

두키아나 결혼정보
 5년 전에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률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451-0240 /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의사/동물병원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외/치과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한의원/안약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



D. C.-MD-VA

워싱턴 DC 지역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현(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자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변호사/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중개업

Sweet Homes Realty
강연식(사대 58) (703) 407-4070
1323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재단

동일시대연구소
이종필(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수익사 /동물병원

Elpaw Veterinary Clinic
한의생(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엔지니어링/양공

Drivetech, Inc.
* 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The Boeing Company
김재훈 (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해보라 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요식업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내과/전문외

도상철 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ntunda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의료/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rwyn Heights, MD 20740

FL

플로리다

리태일러/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의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im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태일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학원/온라인

M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변호사/법률사무소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중개업

로얄 부동산
엄우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렬(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강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rnmca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상당/재정설계

샐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익사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홍(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내과/전문외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의료/외과

Suh Sang Hun, MDPC
서상현(의대 65)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의료/치과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학원/문화학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85

MA

뉴잉글랜드

부동산/중개업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수익사 /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의료/내과/전문외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I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부동산/중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용(공대 52) (734) 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의료/내과/전문외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8

의료/방사선과(암치료)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운 심장내과 C. A. V. A
윤효운(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e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201) 945-7879
321 Broad Ave., #8-3 Ridgefield NJ 07657

건축/설계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충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환 (경대원 88) 718-962-4444
143-51 Roosevelt Ave. #1A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New York NJ 07093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금융/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석(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무역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무역/종합상사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변호사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취(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우(법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용남 변호사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신용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rn,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ine Ave., #9 Fort Lee NJ 07024

부동산/중개업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명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l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웅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l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덕(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비영리법인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물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상당/계정설계

송기뢰 기술상담
송기뢰(행대원 62) (718) 357-8812
45-22 194 St. Flushing 11358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서비스/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 순례 * 전 지역 크루즈 투어 * 고급 방문 및 아시아 투어 *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 (212)238-0989
16 W 3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rirangtravel@hotmail.com

서비스/클리너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환(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llton NJ 08003

서비스/장금장사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hrysler Building Arcade NY 10174

수의사/동물병원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스포츠

보고타 골프센터
김남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인문/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우(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이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요식업

Cheong Hae Restaurant
오치주(농대 67) (718) 460-0500
160-2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유통/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운송/유통/통관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www.kissusa.com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원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Linkwell Corp. (도매)
유우영(공대 66) (845) 624-7460
55 Old Turnpike Rd., #208 Nanuet NY 10954

Young One Fashion (의류도매)
원영일(공대 58) (212) 685-4850
1201 Broadway New York NY 10001

의료/내과/전문외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혜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Dai M. Lim, M.D.P.C.
임대목(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민병덕 내과
민병덕(의대 53) (718) 507-1888
77-08 Broadway Elmhurst NY 11373

방병기 심장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hore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석(의대 69)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Young S. Hahn, M.D.

한영수(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마취의원
추재욱(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욱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웅(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의료/외과

Stan S. Choi, M.D.
최승중(의대 81) (908) 78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기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호(약대 57) (718)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계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웅(약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종교/교회

든든한교회
김상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학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안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OH

오하이오

상담/생활일기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수의사/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흥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내과/전문외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8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440)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Lanca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Lancaster OH 43130

194호 2010년 6월

OK

하트랜드

의료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05) 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 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401

OR

오레곤

공인회계사

김상순 공인회계사
김상순(상대 67) (503) 646-2868
10700 SW Beaverton-Hillside Hwy, #21
Beaverton OR 97005

교회

* 엘림 한인교회
최근영(법대 63) (503) 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생활과대 77)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금융/보험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215) 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 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uite 150 Horsham PA

리테일/잡화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비영리 법인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215) 635-0661
900 Valley Road, #D-202 Melrose Park PA 19027

수의사/동물병원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sdowne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인(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수의 60) (215) 843-595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 지홍민(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 주기록(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
* 전무식(수의 61) (215) 843-6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호(수의 66)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연회장/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401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 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내과/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옥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302) 731- 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약국

쌍동이 약국
허창기 (약대 67) (215) 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업소특 변경에 따른 신청 및 정정 요구 절차
업소특 지면 할애와 광고료 및 디자인 문의는 광고부
(전화 224-548-2148)에 연락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료/치과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215)224-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김종규 치과
김종규(치대 63) (215) 745-6123
8725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오진석 치과
오진석(치대 56) (215) 887- 6718
1883 London Rd. Abington PA 19001

HOU

휴스턴

수의사/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윤성(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300
Katy TX 77494

Westhollow Animal Hospital
유소양(수의 61) (281) 531-9095
13684-A Westheimer Houston TX 77077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선박 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 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엔지니어링/공해시행
Anacon, Inc.
이규진(약대 60) (281) 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엔지니어링/원유개발 컨설팅
Larmie Petroleum, Inc.
명인성(공대 50)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ane Houston TX 77082

의료/내과/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uite 260 Houston TX 77076

장 의사

한국 장 의사

조시호 (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UT

유타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Tel 801-263-8866
282 East 39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WA

워싱턴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부동산/중개업

EJ Estate
이은수(경대원 73) Tel: (253)851-1658
1505 Crescent Lake Dr. N.W. Gig Harbor
WA 98332

의료/치과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 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컴퓨터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 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통증 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Tel: (425)228-7446
947 Powel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WI

위스컨신

의료

Gundersen Clinic
윤 준(의대 61) (608) 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광고 게재 협조요청

모교 서울대에서 발행중인 '大學新聞' 이 미주 동문 여러 분은 물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광고 게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광고 단가는 4단 1면 400만원, 5단(17cm x 37cm)기준 흑백이 50만원, 컬러 광고인 경우 75만원이다. 또 9단 세로 컬러 광고는 100만원이다.

광고 관련 연락처

전화 02-880-5215(담당자 박이진)
팩스 02-872-9511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명예회장 : 이진구(농)

제10대 회장 : 송순영(문)
차기회장 : 김은중(상)

관악후원회장 : 구경회(의)
관악후원회 고문 : 이준형(공)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이병준(상) 방은호(약) 윤정옥(약) 이경림(상)
서동영(사) 김대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진금섭(약) 이용락(공) 서종민(공) 한재은(의)
신응남(농) 김지영(사)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김정주(문)
총무국장 : 이승자(사)
재무국장 : 박 속(의)
특별간사 : 조대현(공) 정 호(공) 장기남(문) 최순용(문)
감 사 : 박영규(농) 김재영(농)

회보 임원 및 임원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조민규(문) 조봉원(법) 조대현(공)
구경회(의) 이승자(사) 정 호(공) 홍혜례(사)

논설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재홍(NY) 백 순(DC) 오강남(BC)
오기창(CH)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정광(LA) 임승패(SF) 정홍택(PA) 한창섭(NY)

각 지부 회의 회장단

남가주	회장	김은중(상대 59입) ekim@pcr-ims.com
	차기회장	김지영(사대 69입) 213-272-9488
북가주	회장	홍성제(치대 69입) 408-504-9358 sjhong@pacbell.net
	차기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샌디에이고	회장	민영기(치대 61입) 818-515-3217 ykmindds@aol.com
	차기회장	임용갑(공대 84입) 858-243-2504 wilsonyyeem@gmail.com
뉴욕	회장	한경수(문리 57입) 516-742-8483 jsh1206@aol.com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윤경의(공대 57입) 703-542-7212 keyoon96@yahoo.com
	차기회장	정상목(약대 83입) 240-346-1043 dreamwork2001@hotmail.com
시카고	회장	이영우(문리 66입) 630-655-2320 young.kim007@gmail.com
	차기회장	김사직(상대 59입) 630-523-1371
필라델피아	회장	손재욱(가정 77입) 267-736-2992 jhaah@timhaahs.com
	차기회장	조화연(음대 64입) 610-490-5335 robertwc@juno.com
휴스턴	회장	박홍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p@msn.com
	차기회장	김순금(간호 69입) 713-828-5909 sibokkim@yahoo.com
델러스	회장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dlee4@naver.com
	차기회장	이석호(공대 78입) 972-475-1184
조지아	회장	이영진(공대 76입) 404-579-8282 youngjinlee999@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뉴잉글랜드	회장	윤상래(수의 62입) 978-343-3049 yoonsville@aol.com
	차기회장	윤희경(문리 62입)
미네소타	회장	김영석(공대 73입) 612-750-0885 ysk495@gmail.com
	차기회장	신학철(공대 75입) 651-351-1622 hakcheolshin@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신창범(법대 73입) 425-562-0808 changshin@eschelon.com
	차기회장	이승택(수의대 75) 253-874-3558
오하이오	회장	최인갑(공대 57입) 614-436-5780 jchoi613@gmail.com
	차기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하와이	회장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차기회장	전수진(농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하를랜드	회장	배규영(사대 68입)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차기회장	구명순(간호대 66입) 913-268-0228 chungmm@yahoo.com
플로리다	회장	
	차기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utah.edu
	차기회장	박찬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park@fairchildsemi.com
캘리포니아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541
	차기회장	
로키 마운틴스	회장	전남인(사대 72입) 719-592-0037 jhonjieun@hotmail.com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 yhoh@ratheon.com
	차기회장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503-587-0447
	차기회장	박희진(문리 57입) 503-848-6803
알래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연(농대 58입) 907-561-0818
캐나다 온타리오	회장	한성택(약대 58입) 416-293-6138 samhahn@activebioresearch.com
	차기회장	김학성(농대 74입) 905-873-1989 haksxim@gmail.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박하일(문리 59입) 604-266-7955 hailpark@telus.net
	차기회장	이 현(공대 79입) 604-454-4424 jameshyunlee@hot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이근홍(농대 65입) 403-554-4830 leekhken@hotmail.com
	차기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g@hotmail.com

동문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전문적 논설과 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부유케 하는 문학작품 (시·수필·기행문·단편소설 등)과 동문들의 동정(직업 변경, 이사, 활동 사항 등) 제보와 투고를 받습니다. 또한 동문 회보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해 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회보 편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타자하시어 e메일로 보내거나 필경을 한 원고는 우편으로 보내시고 팩스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1페이지에 적합한 원고 분량은 12포인트 싱글 스페이스, 레터 사이즈 2페이지 정도(한글 약 3천자)입니다. 원고가 길 때는 부분 삭제될 수 있습니다.
*동창회와 연락 및 투고를 하실 때는 본인의 출신 단과대학 및 입학년도, 그리고 거주 지역을 밝혀주셔야 등명이인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고 보내실 곳: 456 Frontage Rd., #3 Northfield IL 60093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미주 동문의 웹 사이트 운영

미주 동창회 웹 사이트 관할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10대 임원회는 그간 웹 사이트 활용을 하지 못해 왔으며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별도로 설치, 운영키로 했습니다.

제 9대 회장단 이전에 사용하던 웹 사이트 (<http://www.snua.net/>)와 뉴욕에서 운영하는 서울대 동문 카페 (<http://cafe.daum.net/snua10>)는 동창회 제10대 회장단의 활용이 여의치 않아 웹 사이트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새 웹 사이트는 현재 건설, 운용중이며 동창회의 필요한 공지사항과 회보, 동문 서베이 등 기능적인 페이지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웹 사이트가 완전히 구축되는 동안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차차 개선될 것이므로 양해와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새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nuaa.org/>

함께하는 서울대의 도약

VISION2025

선배님! 함께 해주세요!

VISION2025 모금 캠페인, 세계 최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선배님, 우리 후배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다져놓으신 전통을 기반으로 삼아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
비전2025 모금 캠페인은,
세계 정상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모교와 나라에 대한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3천억 원 모금을 목표로 시작한 비전2025 캠페인,
이제 그 대단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멋진 마무리는 선배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의 뜨거운 모교 사랑이
바로 서울대의 경쟁력입니다.

- 동문 집중 참여 기간 : 2009년 8월 ~ 2010년 7월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위 기간동안 나이, 성별, 국적을
불문한 전 동문의 '약정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주지역 기부방법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발전기금미주재단은 뉴욕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 연방에 등록된 501(c)(3)Tax-exempt organization입니다. 미국 납세 의무자께서 미주재단을 통해 기부하실 경우 IRS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 계좌정보

Address : SNU Foundation Inc.,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USA
Tel : 212-768-9144 Fax : 212-768-4494 Email : kenneth@kennethleecpa.com
담당자 : 이경림 (Kenneth K. Lee, CPA)

Bank Name : Shinhan Bank America, Little Neck Branch
Address : 252-20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Account No. : 115-6-000805 (Routing No. : 026011963)

※ 미주재단으로 주식을 기부하셔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중 주식 계좌 개설 예정)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샤프 여행사 광고
지중해 크루즈